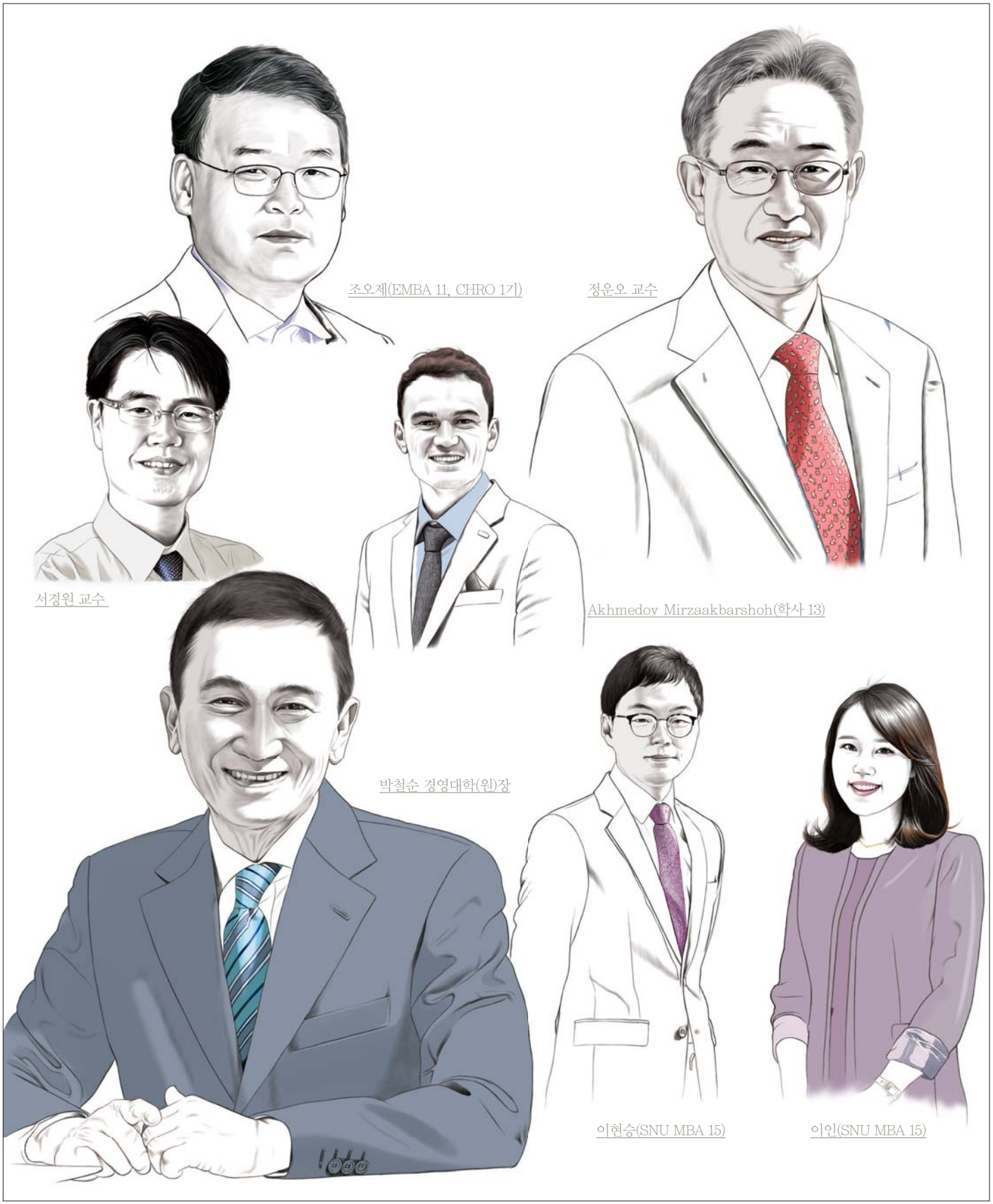
Seoul Business Letter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소식지

2017. MARCH **VOL.148**



조오제(EMBA 11, CHRO 1기)

정운오 교수

서경원 교수

Akhmedov Mirzaakbarshoh(학사 13)

박철순 경영대학(원)장

이현승(SNU MBA 15)

이인(SNU MBA 15)

CONTENTS

4 **취임사**
- 박철순 서울대 경영대학(원)장

SNU Business People

8
- 17학번 새내기 학생들 입학을 축하합니다 / 신입생 학부모
-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위해서 노력하는 청년 / 조영준(학사 09)
- 노력과 끈기의 이방인 "모범생" / Akhmedov Mirzaakbarshoh(학사 13)
- 도전, 또 다른 시작 / 이인 · 이현승(SMBA 15)
- 제자에서 스승으로 다시 찾은 모교 / 서경원 교수
- 2016 서울대 교육상 수상 / 정운오 교수
- 동기들의 사랑에 작은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 조오제(EMBA 11)

SNU Business Special

24
- 경영대학 졸업생의 사회 진출 / 윤계섭 교수
- 숫자로 보는 MBA 10주년
- 82학번 · 86학번 홈커밍데이
- 제1회 EMBA 가을 뮤직 페스티발

SNU Business Review

33
- [도서추천] 경영학 두뇌 / 김병도 교수
- 결정적 사건 기법: 융합시대 소비자 반응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자 / 오정석 교수
- 주식의 수요, 공급곡선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연구 / 김정욱 교수
- 레드오션에서 살아남기: 한국 커피 프랜차이즈에 대한 고찰 / 김수욱 교수
- 삼성을 통해서 본 경쟁적 협력 시스템의 효용성 / 송재용 · 이경묵 교수
- 국채 신용등급 조정은 주식 유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이관휘 교수

SNU Business Site sketch

44
- 경영대 하이라이트
- EMBA 소식
- 경영자과정 소식

SNU Business Network

49
- 전공 소식
- 교수 소식
- 동문 소식
- 발전기금 소식

Seoul Business Letter

2017. MARCH **vol. 148**

발행일 2017년 3월 **발행인** 박철순 **편집인** 강성춘 **편집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58동 601호 학장실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 TEL 02-880-6900 **제작** 더에이치(주) TEL 031-247-5141 정가 6,000원

<경영대학 뉴스레터 광고를 기다립니다> 경영대학 뉴스레터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연 2회 발간하고 경영대학 동문 및 가족에게 매호 20,000부가 배송되는 종합소식지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뉴스레터에 광고를 게재하면 모교를 지원할 뿐 아니라 회사를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경영대학 동문 소식을 기다립니다> 경영대학 뉴스레터에 게재할 동기회 소식 및 동문 소식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동문들에게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TEL** 02.880.8931 **FAX** 02.877.0513 **문의** E-MAIL jykang@snu.ac.kr **담당자** 강지영 *동문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취 임 사

Dean's message

약 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에서 경영학박사학위 (전략 및 국제경영)를 취득하였다. 그 후 영국 의 런던경영대학원(London Business School)에서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정식 교수로 부임하여 전략 및 국제경영에 관한 연구 및 강의를 수행하였다. 1996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부임하여 2005-2007년 동 대학 경영대학 부학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 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LRP: long range planning, Journal of World Business, Corporate Governance: An International Review 등 세계 저명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특히 1996년에는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세계경영학회 (Academy of Management)에서 세계 최고권위의 경영학 학술지인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의 "1994년도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저서로 는 "세계수준의 한국기업에 도전한다" (2003) 등이 있다
- 사단법인 시오서원(施悟書院)의 이사장으로 인간적인 경영인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한국경영학회 부회장(국제협력위원장)을 비롯해 다수의 국내외 저명 학술지 상임이사 및 편집위원, 특히 세계 저명 학술지인 LRP: long range planning 특별호의 편집위원장(2003-2007년)을 역임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 자체평가 심사위원, 노동부 혁신자문단 위원, 특허청 운영심의회의 위원,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등 대외 활동을 역임 또는 현재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신한은행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였고, 하나은행, 현대하이스코, 삼성그룹, LG그룹, SK 그룹, 롯데그룹, 현대/기아 자동차그룹, POSCO 등에서 사외 이사, 자문교수, 또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1996년 제가 서울대학교에 부임하면서 이 글귀를 처음 접했을 때 너무나 가슴이 뛰었고 지금도 이는 여전히 제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국의 미래"는 서울대학교의 존립근거입니다. 그리고 이는 여기서 연구하고 강의하는 교수님들, 졸업생을 포함한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교수와 학생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 즉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가족 모두의 삶의 의미이자 가치입니다. 조국의 미래를 보려면 관악을 봐야 합니다. 그 관악의 중심에 우리 경영대학이 있습니다.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 내 경영대학"을 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경영대학의 대내외 위상은 최근 급격히 낮아지고 있고 이에 많은 경영대학 가족들은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기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대내외적인 환경이 "조국의 미래"는 "나의 미래"라는 우리의 믿음을 퇴색하게 만들었고, 우리 대학 또한 경영대학 가족들로 하여금 "조국의 미래'보다는 "나의 미래"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둘 수밖에 없도록 운영된 결과라 생각합니다.

전세계 모든 대학이 "최고의 연구역량을 가진 대학, 그리고 최고의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꿈은 "조국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연구역량을 가진 대학, 그리고 "조국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경영대학의 이러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평소에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와 민족,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최고의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운영방식, 교육지원제도 등을 획기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대학은 여러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적응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 대학 본연의 비전에서 다소 벗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조국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인재가 아니라 단순히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것과 같은 개인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는 인재로 양성하는 데 만족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을 국가와 민족, 그리고 사회에 대한 고민,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한 배려, 주위 사람들에 대한 희생과 봉사를 통한
협업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우리 대학의 교과과정, 운영방식, 각종 교육지원제도 등은 그 동안 부분적인 변화와 개선을 해 왔지만 이젠 전면적인 변화를 꾀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면적인 변화를 통해 우리 학생들을 국가와 민족, 그리고 사회에 대한 고민,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한 배려, 주위 사람들에 대한 희생과 봉사를 통한 협업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교수님들께서 단기적으로는 게재가 어렵더라도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공헌이 많은, 그리고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의 연구업적 평가기준이 주로 정량적으로 이루어져 우리 경영대학 교수님들은 본인이 그렇게 원하지 않으나 저널 게재가 용이한 논문, 또는 단지 논문 개수를 채우기 위한 논문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와 위상에 걸 맞는, 그리하여 우리 교수님들이 조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고, 본인 스스로도 진심으로 몰두하고 싶은 연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 평가제도 및 승진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학교의 활동영역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의 역할은 학생을 선발하고 이들을 교육해서 사회로 진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재학생을 위한 지원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졸업생을 위한 지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의 활동영역은 학생을 선발하고 이 선발된 학생에 대해 재학 중일 때는 물론이고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동창회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함께 졸업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더욱 많은,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영대학 교수님, 재학생, 직원, 그리고 졸업생 여러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원이 절실합니다. 조국의 미래를 위한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장

사진 왼쪽부터

김수욱 교무부학장 박철순 학(원)장 강성춘 학생부학장 박남규 MBA부학장

제 18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 취임

지난 1월 23일 제 18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이 취임했다. 이취임식은 따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교무부학장에 김수욱 교수, 학생부학장으로 강성춘 교수, MBA 부학장에는 박남규 교수가 각각 중책을 맡았다. 교무부학장은 교수 임용 및 교과과정 등에 관여하며, 학생부학장은 학생, 기획, 국제교류 등을 전담한다. MBA 부학장은 MBA 프로그램 전반에 관여한다. 신임학장단의 임기는 2017년 2월부터 2년이다.

17학번 새내기 학생들
입학을 축하합니다

서울대학교의 새 가족으로 첫발을 내딛는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스승, 동료, 선배, 후배 그리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이 여러분의 미래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부 신입생 150명이 17학번 새내기로 입학했다. 신입생들은 지난 2월 15일 경영대 교수님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2월 16일 학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했다. 오리엔테이션 이후 경영대 학생회 주관으로 2박3일간 충남 보령시 대천 웨스토피아 리조트에서 진행된 새로배움터까지 신입생 행사를 마무리한 17학번 새내기들의 힘찬 앞날을 응원하며, 수험생 기간 동안 그 누구보다도 마음 졸이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학부모의 소감을 들어보았다.

상하야

학생의 본분은 학업일 것이니 학업에 충실해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학업과 더불어 한번쯤 생각해볼 일이 있다.

- 나를 위하는 학문
- 남을 위하는 학문

나를 위하는 학문을 할 것인가? 남을 위하는 학문을 할 것인가?

위기지학은 나의 내면을 연마하여 훌륭한 인품을 함양하고 참된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 궁구하며, 국가와 민족에 어떻게 헌신할지 고민하는 큰사람이 되는 학문이요. 위인지학은 출세만을 지향하며, 남에게 자랑하고자 공부하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요. 겉치레에 충실한 학문일 것이다. 위기지학이 아닌 위인지학만을 하게 되면 내면은 빈 껍데기만 남아서 요행으로 출세 한다고 해도 사회에 악을 끼치는 인사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기지학은 내가 드러내지 않으려 해도 남이 드러내줄 것이요. 출세하지 않으려고 은거해도 다른 이들이 세상에 나오도록 이끌어 낼 것이요.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남이 너를 칭찬해 줄 것이다. 위기지학을 진실되게 하다 보면 위인지학은 자연히 이루어 질 것이다.

삶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나를 위한 삶을 살 것인가. 남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또 생각해 보자. 네가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서울대학교에 가게 된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더냐, 좋은 과외를 받았더냐, 좋은 학원을 다녔더냐, 유명한 족집게 선생님을 모셨더냐?

수많은 세월을 하루같이 규칙적이고 꾸준한 평범한 생활의 유지였고 끊임 없고 쉬지 않는 노력 아니었냐. 나는 규칙적이고 평범한 생활과 쉬지 않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공을 이루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뿔이 지나치면 나무가 썩는 법, 부모의 지나친 관심은 자식을 망치는 것을 알기에 이만 줄인다.

너의 앞날에 건투를 빈다.

아버지가

경영대학에 바라는 점

"수험생 누구나 그랬을 것이지만, 부모의 마음으로는 곁에서 지켜보기가 안쓰러울 정도로 노력하여 본인이 원하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했을 뿐이고 넘어야 할 산이 첩첩하니 한걸음 한걸음 마다 신중하게 걸어갔으면 합니다.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는 서울대의 비전을 알고 있습니다.
위 문장은 구성원들의 벅찬 자긍심과 무한한 책임감이 담겨있는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기에 위 글귀에 어울리고 부끄럽지 않을 인재로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만큼 사랑의 크기도 점점 자라 남을 먼저 배려하고 자신이 가진 재능과 지혜를 이웃과 나누며 살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 좋은 글귀를 써주신 17학번 문상하, 17학번 김소연 학생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위해서 노력하는 청년

조영준(학사 09)

Cho Youngjun

한때는 축구가 너무 좋아 축구 산업에서 일하는 미래를 꿈꿨다는 조용준 씨. 지난 2월 24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더 큰 세상을 보기 위해 현재 국립외교원 연수과정을 밟고 있는 그를 통해 도전을 주저하지 않았던 꿈 많던 20대를 상기시켜 본다.

Q. 먼저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학교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영대 축구부 아르마다(ARMADA)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친한 선배를 통해서 아르마다를 접했습니다. 그 당시 싸이월드에 선배가 올린 사진을 보며 꼭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동아리였습니다. 대학생활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제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아르마다 활동을 하면서 가장 소중한 순간은 신입생 때 참가한 '총장배 대회'에서의 준우승입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결승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접전 끝에 승부차기에서 좋은 기회를 맞이했으나 여러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결국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종료 휘슬이 울리는 그 순간 운동장 위에 있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아쉬움과 슬픔들이 이제 막 들어온 신입생이었던 제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그 때 느꼈던 열정, 간절함, 후회 등의 복잡한 감정이 아직도 마음 한 켠에 남아있습니다. '축구'라는 같은 관심사를 통해 추억과 정을 쌓고 가족 같은 관계로 발전해온 아르마다가 제게는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영대를 대표하는 동아리로서 멋진 모습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Q. 경영대생으로서 다양한 진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관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취업, 창업, 회계사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축구 산업에서 일하는 제 미래를 상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관이라는 진로를 택한 이유는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점과 제 가치관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는 해외에서 사는 삶을 동경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을 떠나 더 큰 세상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지녔습니다. 외교관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업이기에 그만큼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발전'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외교관이라는 직업은 항상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만큼 '발전'이라는 가치관에 부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Q.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을 준비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준비과정에서 힘들었거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시다면?

외무고시가 폐지되고 현재는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인원들은 국립외교원에서 1년 동안 연수를 받습니다. 연수가 끝난 후에는 외교관으로 임관되고 외교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모든 시험이 그렇겠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막연함과 불안함'이었습니다. 언제 합격할지 모르는 막연함,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하루에도 몇 번씩 생겼습니다. 특히 가까운 선배, 동기, 혹은 후배들이 하나 둘씩 사회에 진출하는 모습을 본 이후로는 이러한 막연함과 불안함이 가중되었습니다. 동시에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시간이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소통과 교류가 별로 없었습니다. 친한 친구들, 선배들, 동기들과 자주 만나지 못하면서 혼자 소외되었구나 혹은 외롭다라고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Q. 졸업 후 장래의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국립외교원에서 연수 과정에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외교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역량과 덕목들을 키워 좋은 성적으로 연수과정을 마치고 싶습니다. 좀 더 먼 미래를 보자면, 대한민국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외교 정책 결정자가 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다양한 외교적 현안과 마주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복잡해지고 거대해질텐데, 이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언젠가 이루어질 통일 한국의 건립과 이후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공직자가 되고 싶습니다.

대학생활을 마치는 사람으로서 꼭 "주저하거나 미루지 말고 많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후배들을 향한 조언을 전했다. 조영준 졸업생은 본인도 매번 듣던 진부한 말을 직접 하게 된 것에 대해 겸연쩍어 했지만, 대학생활 내내 실천을 하지 않았던 가장 후회되는 문구라고 덧붙였다.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도전을 해야 합니다. 이때의 도전은 꼭 창업을 한다거나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등의 거창한 행동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해보지 못했던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가보지 않았던 지역으로 떠나는 소소한 행위들이 더 중요하고 의미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좋은 기억들을 안고 졸업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와 학업 등을 핑계로 아르바이트나 여행에 소극적이었는데, 이에 대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으시다면 미루지 말고 꼭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후배들에게 또, 자신의 학교생활을 향한 진심 어린 그의 목소리에서 지금도 계속 도전중인, 도전 중에도 다음 도전 목표를 향해 고개를 드는 젊은 청년의 모습이 그려졌다. 학교, 친구, 동아리는 이제 그의 기억 속에 남게 됐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제 막 시작이다.

노력과 끈기의 이방인 "모범생" 서울대 동문이 되다

Akhmedov Mirzaakbarshoh
(학사 13)

훤칠한 키에 진한 이목구비, 한눈에 봐도 잘생긴 외국인이다. 아메도프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서울대학교로 유학을 왔으며, 130학점 중 90학점을 한국어 강의로 들을 만큼 악바리 모범생이다. 졸업과 동시에 현대제철에 입사했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그를 통해 외국인으로서의 서울대 생활을 들어 본다.

Akhmedov Mirzaakbarshoh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봐주지 않는 서울대

처음부터 한국으로 유학을 올 마음은 없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명문대학에서 정치학과를 다니고 있었고,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접했을 정도, 아메도프는 처음 한국 유학에 별 뜻이 없었다. 서울대학교 합격소식과 본국에서 장학금을 받아 오게 된 서울에서 아메도프는 생각지 못한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서울대학교 생활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고되고 힘들었다.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압박은 자존감을 떨어뜨렸으며, 우즈베키스탄에서 생각했던 서울대 생활과 실제 생활과는 괴리감이 매우 컸다. 아메도프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수강하는 강의에 대다수는 한국어강의를 듣기로 다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생각만큼 수월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 글을 쓸 때나, 시험을 볼 때 한글이 불리했으며, 철저하리만큼 상대평가가 진행됐다.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을 봐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마주 할 때면, 심리상담을 받을 정도의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다고 한다.

"서울대학교는 외국인을 '외국인 대우'를 해주지 않아요".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묻자마자 아메도프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다. 아메도프는 "정신적으로 정말 강해야 된다. 특히 외국인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잠시 들르는 교환학생과 신입생으로 입학한 외국인과는 철저히 다르다는 아메도프는 학생들이 독립적이기를 원하고, 그렇게 행동하게끔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이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편하고 당당하게 됐다는 아메도프의 말에서 학업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휴학 없이 4년 공부를 한 당참을 볼 수 있었다.

친구, 경영대 도서관, 마음 붙일 곳이 생기다.

서울대학교, 경영대 친구들, 계속해서 자극을 주는 이 분위기가 좋아졌다. 아메도프는 처음 입학하고 얼마간은 방황도 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면서 점차 적응을 했다. 서로가 자극을 해주는 그 분위기가 좋았으며, 매일 아침 경영대 도서관에 자리를 맡아주며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이 들기 시작했다. CPA를 준비하는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도 하면서 점차 자신감도 붙었다.

졸업 그리고 한국에서의 취업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온 제가 여기를 떠나면 지금 여기서 만든 인연들과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아 한국에서 취업하기로 했어요" 아메도프는 대학생활을 하면서 만난 인연들을 생각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한다. 아메도프는 4년 대학생활 동안 단련이 되어서 그런지, 오히려 직장인이 된 지금 한국 기업의 조직사회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자부심도 들고 연수동기들과도 많이 친해지고, 어울려 지내며, 물론 일은 많고, 또 열심히 하는 분위기지만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친근하다며 회사문화를 옹호하는 아메도프는 누가 봐도 전형적인 대한민국 신입사원이었다. 요즘도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를 매주 본다는 아메도프, '혼밥', '혼술'에 익숙했던 이방인에서 어느덧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서울대 동문이, 상사가 부하직원의 졸업을 축하해주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와 줄 정도로 각별히 챙기는 신입사원이 되어있었다.

도전, 또 다른 시작

MBA 졸업생 인터뷰

최근 우리나라 경영전문대학원(MBA)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06년 국내대학에 한국형 MBA가 개설된 이후, 심각한 청년 구직난 속에서 MBA 졸업장을 받아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MBA 졸업생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과거처럼 MBA를 나오면 '몸값'이 두 세배 뛰는 시절은 지났으나, 커리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MBA 만큼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인
(SNU MBA 15, CJ E&M 스타일컨벤션팀 대리)

이현승
(SNU MBA 15, 삼정KPMG 시니어 컨설턴트)

No를 YES로 바꿔준 계기, 서울대 MBA

이현승(SNU MBA 15, 삼정KPMG 시니어 컨설턴트)

LG 전자 재무회계팀에서 3년 가량 근무하던 시기, 이현승씨는 장기적인 커리어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회사 내에서의 경력을 쌓을 것인지, 이직을 해서 외부로 경력을 쌓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 하면서, 고민의 해법을 MBA로부터 시작해보기로 결심했다. MBA에서 얻을 수 있는 본질은 네트워크에 있다고 판단한 이현승씨, 한국에서 계속 커리어를 쌓으려면, 국내 MBA로 진학하기로 가닥을 잡고 준비했다.

MBA를 통해 답을 찾았다

"아무래도 저와 같은 시기에 MBA 진학을 염두에 둔 분들의 고민의 시작은 기회비용 대비 결과일 겁니다. 지금의 직장보다 좋은 직장을 갈수 있을 것인가, 결혼, 지금까지 벌어놓은 수입 등이 제가 당시에 제일 크게 여겼던 기회비용이었습니다." 이현승씨는 MBA 진학을 고민했던 시점을 회상하며 "입학 당시 제가 고민하고, 의문을 가졌던 많은 질문들에 대해 서울대 MBA를 졸업하고 보니, 결국 그 해답이 나왔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동문 네트워크가 결국 구직과정에서 No 라고 생각했던 순간 YES 로 만드는 작용을 한 것 같다."며 내가 MBA 이전 직장보다 좋은 곳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많은 주변 동기들이 결과론적으로는 YES였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가족같이 지낸 지도교수님

이현승씨는 MBA 프로그램에서 단연 최고의 장점을 교수님과의 호흡으로 꼽았다.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창업아이템을 개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교수님이 피드백 주는 구조가 학부와는 전혀 달랐으며, 지도교수님과의 관계가 매우 각별하다는 점이다. 학부 때는 지도교수님 뵐 일이 거의 없었는데, MBA 에서는 지도교수님과 거의 가족같이 지내다시피 했다. 이현승씨는 아마도 직장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 교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도 학부생 때와는 달랐던 것 같다며, 그 어떤 것보다도 교수님과의 대화와 지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대 MBA, GNAM Network , Finance Forum

서울대 MBA를 다니면서 GNAM Network 를 통해 진행했던 투자 분석대회가 가장 인상에 남는다는 이현승씨는 지난 학기 동기들과 팀을 이뤄 투자분석대회에 나갔을 때의 일화를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지난 학기 카카오라는 기업을 선정해서 바이사이드(Buy-side) 리서치 보고서를 작성하고 화상 발표를 통해 GNAM 네트워크에 속한 대학 팀들 중에서 TOP 4까지 올랐던 경험은 상당히 도전적이고 흥미 로웠던 기억으로 남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리고 MBA내에 있는 Finance Forum 을 통해 부동산,IPO, M&A 등 주제와 기업을 선정하여 워크숍을 준비한 뒤 교수님과 MBA 동문을 초청하여 학회를 연 것도 잊지 못할 기억이라며 이현승씨는 입사할 때 또 직장에 들어간 이후에도 어쩌면 이런 경험들이 가장 어필이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해피아워, 함께할 수 있는 경험들이 더 많았으면

"MBA프로그램 특성상 과목별로 term 이 짧아서 교수님과 오랫동안 못 뵈었는데,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었던 것이 해피아워였던 것 같다. 현재 교수님별 1회인 해피아워가 더 늘었으면 한다." 고 바람을 전했다. 또 MBA 동기들이 Study Tour 같이 다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끝으로 후배들에게는 "강의를 듣는 것은 기본이고, 그것 외에도 본인들이 주도로 프로젝트를 하고, 포럼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꼭 해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현승씨에게 서울대 MBA 과정은 경력전환에 대한 무수한 질문과 고민에 대해 YES 라는 답을 갖게 해 준 16개월의 소중한 시간이었다.

더 많은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준 소중한 시간

이인(SNU MBA 15, CJ E&M 스타일컨벤션팀 대리)

회사를 정하고 이직에 도전한 것은 아니다. 패션디자이너, 건축가, 작가, 드라마 PD, 영화감독 이인 씨의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다. 어렸을 때부터 꿈이 다양했고, 페스티벌 가는 것을 좋아했던 이인 씨는 그 동안의 꿈을 다 종합해보니, 결국 하고 싶었던 일이 "콘텐츠 제작" 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MBA, 충분한 고민 후 결정

가족과 지인의 추천으로 MBA를 고민해 보게 됐다. 학부 시절 영어 교육을 전공했었던 터라, 탄탄한 커리어를 쌓으려면 경영지식이 필요했고 서울대 MBA 에 지원하게 됐다. 물론 선택에 있어 고민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다는 이인 씨는 학비, 기회비용, 커리어 고민도 많았지만, "맞다고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는 기회비용은 없다."라는 결심 하에 선택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밤샘 노력 끝에 얻어낸 대상 수상

누구나 그렇듯이 이인 씨도 입학 당시 멀리했던 과목들 재무와 회계 과목들을 잡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이인 씨는 "다녀보니 역시 마케팅, 브랜딩 쪽 수업이 맞더라."며, "MBA 학생으로서 공부만 하는 모범생은 아니었다" 라고 회상했다. 이인 씨는 공부도 중요했지만, 그와 동시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동료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고 영감을 얻는 것이 더 소중했다는 말을 전했다. 특히 2015년 동기들과 함께 했던 머니투데이 방송 주최 'MBA 경영사례 분석대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된 경험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았다. 7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 'KT is 114 안내 및 부가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학교에서 매일 함께 밤새고 치열하게 준비했던 그 순간, 팀원들 사이에서 각자 전문분야의 목소리를 내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고민했던 그 경험들이 지금 입사 후에도, 앞으로도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Global Leaders Series, 커리어 설계의 조력자

매 학기 10회 이상 진행됐던 Global Leaders Series, 매달 기업의 CEO 또는 임원들을 연사로 초청하여 경제 및 산업의 동향과 커리어와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인 씨는 커리어 설계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연사로 초청됐던 여성 CEO,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밀도 있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면서 커리어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중한 16개월, 인생 중 투자해 볼만한 시간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수는 없다. 기회비용을 걱정하고, 손익을 따지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본다. 이인 씨는 과감하게 서울대 MBA를 선택했고, 베팅했다. MBA에서의 1년은 정말 소중했다고 마지막 인사를 한 이인 씨는 열정을 가지고 "ACTIVE" 하게 할 수 있겠다 싶은 일이면 도전하자고 한마디를 남겼다.

2017년 2월 24일 GMBA, SMBA 86명이 지난 1년 4개월 동안의 시간을 서울대 MBA에 과감히 투자하고, 관악캠퍼스에서 느낀 열정과 성취감으로 새로운 사회생활을 향해 큰 발을 뗐다. 졸업생 모두의 발걸음이 더욱 경쾌해지기를 바라며, 밝은 앞날을 기대한다.

제자에서 스승으로 다시 찾은 모교

서경원 신임교수

약 력

학력

- 1998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2002년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 2008년 미국 로체스터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경력

- 2008 ~ 2012년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영대학원 조교수
- 2013 ~ 2016년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조교수
- 2016년 ~ 서울대 경영학과 부교수

주요 연구 분야 및 최근 연구 주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크게 세 분야의 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학이론 중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입니다. 기존 경제학에서는 의사결정자가 확률 분포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론을 전개해왔습니다. 이에 반해, 저는 확률조차도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 하의 의사결정방법을 연구하였는데, 주식시장이나 선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내일 주가가 오를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조차도 불확실하다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투자자를 어떠한 이론모형으로 설명하여 주식시장을 분석할 지 등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량경제학 연구로서, 기업 간 경쟁에 대한 게임이론 모형을 실증 데이터로 분석하는 기법을 연구하였습니다. 가령, 각 지역에서 어떤 상점들이 입점하여 경쟁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경쟁이 정부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받고 소비자 후생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분석할 수 있는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대형 상가의 최적 위치 선정 등 마케팅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분야는

계산경제학 분야로서, 제품의 가격탄력성 측정 및 수요 예측을 더욱 빨리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제품의 가격 탄력성을 측정하면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판단할 수 있어서 정책당국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은 기업의 최적 마케팅 믹스를 결정하는데 핵심요소입니다. 최근 빅데이터가 유행어가 될 정도로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계산경제학 연구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주로 기초연구에 집중하였지만, 최근에는 금융시장 등에 관한 응용연구로 분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의 위험관리와 금융위기에 관해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동시에 위험관리를 하게 되면, 금융시장에 발생한 작은 충격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자산을 매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는 자산가격을 더욱 하락시키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위험관리차원에서 또다시 자산을 매도함으로써 결국 금융위기라 할 정도의 자산가격 저평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험관리가 위기를 불러오는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런 연구들을 통해 실제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학문을 출발하셨는데, 경영학과 경제학의 연관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경영학과 경제학은 모두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입니다. 경제학과 경영학의 경계가 완전히 분명하게 나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경제학은 주로 경제 내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포함하는 사회적 효용을 연구하는 반면, 경영학은 기업 입장에서의 의사결정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들이 참여하는 주파수 경매와 같은 상황은 경매이론(auction theory)을 통하여 분석할 수 있는데요, 경영학에서는 통신사들의 최적 입찰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겠으나, 경제학에서는 통신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경매 수입까지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제도가 무엇일지를 연구합니다. 비슷한 문제를 서로 약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Econometrica, Journal of economic theory, theoretical economics 등 유명한 저널에 다수 논문을 출간하셨는데요, 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중요한 연구자로서의 자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회과학 연구자는 우선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관심을 갖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고민을 통해 무엇을 연구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연구들은 인류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매우 실질적인 함의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고민을 위해서는 학창 시절에 다양한 경험, 그리고 풍부한 독서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실적으로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좋은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토익과 같은 시험점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연구자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경영, 경제, 수학, 통계가 아니라 영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게다가, 한국인이 학자로서 대성하지 못한 대부분의 경우는 전공 분야의 지식 부족 때문이 아니라 영어에 능숙치 못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저보다는 훨씬 영어를 익히는데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학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영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회과학 연구자는 우선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관심을 갖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학기 경영대생들과 한 학기 호흡하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던 것이 벌써 20년도 더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 때에 어떤 생각과 자세로 생활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하지만, 한 학기 학생들을 가르쳐보니, 제가 학생이었을 때보다 훨씬 더 성실하고 열심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보람도 있고, 더 많은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분명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열심히 잘 외우거나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 새로운 가능성을 선도적으로 발견하고 개척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역량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저는 학생들이 너무 눈앞에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보다 긴 안목과 여유를 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은 것들을 해보는 진취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운오 교수의 회계학 수업은 경영대학 학생들 사이에서 명강의로 소문난 과목이다. '회계원리', '중급회계' 등 경영학 전공생들에게도 편하게 들을 수 없는 분야지만, 정운오 교수는 지금까지 경영대학 우수강의상을 두 차례 수상하였다. 2016 서울대 교육상을 수상한 정운오 교수는 최근에는 회계학뿐 아니라 "기업윤리" 과목을 사명감을 가지고 강의함으로써 윤리적 리더십을 가진 경영자가 기업의 존재목적을 "이윤극대화"가 아닌 새로운 비전과 가치에 근거하여 재정의해야 함을 강조하여 경영학도에게 교육을 통해 경제정의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강의는 "쉬워야 되고" "재미있어야 되고" 학생들이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16 서울대 교육상을 수상한 정운오 교수가 평소 갖고 있는 강의 철학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는 강의가 쉬워야 되요. 용어 선택부터 상당히 고민하죠. 저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모른척하면서 학생들이 좀더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풀어서 설명하려고 노력해요." 이것이 정운오 교수의 회계학 강의가 학생들 사이에서 "믿고 듣는" 강의가 된 비결이다.

정교수는 강의가 재미있어야 되고, 학생들과의 교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이것이 정교수가 강의의 현장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장과 직접 연결된 지식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관련기사, case 등을 충분히 활용해서 재미를 주고 있다. 학생들은 강의가 재미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암기하거나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계속해 보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학생들이 듣는 수많은 과목들이 융합될 때 큰 힘이 발휘됩니다." 정운오 교수는 지식이 파편화 되지 않도록 회계학 강의시간이라도 경제학적인 개념을 가져오고, 재무관리에서 배운 내용들을 상기시킨다. "Spoon-feeding식의 수동적인 공부는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이게 왜 그런지, 배우는 지식 밑에 깔린 원리를 이해하라고, 그렇게 강의하려고 하죠." 최근 정운오 교수는 MBA 학생들에게 '기업윤리와 법률문제'라는 과목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위협하는 기업비리가 점증하는 현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매 학기 던지고 있다.

제가 정의 내리는 윤리경영은 "주주를 포함한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줌으로써 그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는 활동" 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신뢰와 존경이 밥 먹여주냐고 물어보지요 "밥 먹여 줍니다."

정운오 교수는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기업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현재 100년 이상 유지되어온 기업들은 거의 예외 없이 윤리적인 기업들이라고 말한다. 이제 윤리경영은 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버린 것이다. 기업들이 사회에 던져진 문제에 대해 같이 끌어안고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정운오 교수는 이게 바로 윤리경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전했다. 정운오 교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소위 요즘 우리사회에서 이야기 하는 금수저입니다."라고 말을 꺼내며, 수저논란이 너무 경제적인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서울대 학생들은 어떤 의미에서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으니 금수저이고, 그렇다면, 내가 남보다 탁월한 재능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와 권력만을 축적한다면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라고 역설했다. 진부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내가 가진 다양한 재능을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너무 공부만 하지 말라는 진심 어린 말도 함께 덧붙였다. "왜 4년만에 졸업하려 합니까? 1년 정도 교환학생도 가보고,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경험하고, NGO같은 단체에서 봉사활동도 해보면서 생각의 폭도 넓히고 시야도 넓혔으면 해요." 30년간 불확실한 미래에 고민하면서도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20대의 경영학도와 매일같이 마주한 선배이자 스승의 진심 어린 말이 가슴 깊이 남는다. 학생들은 결국 스승을 닮아가더라는 것이 정운오 교수의 경험이다. 그는 "우리 사회의 한 시민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자 노력하는 스승"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교수이다.

내가 가진 다양한 재능을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동기들의 사랑에 작은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조오제(EMBA 11, CHRO 1기)

현재 EMBA 총동문회 사무처장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 투병 중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학교를 위해 봉사하시고, 또 EMBA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까지 참석하시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EMBA 총동문회 사무처장을 3년째 맡고 있습니다. 사무처장의 역할은 전임 총동문회장인 김성민(3기 ㈜이앤브이 회장) 형님과 현재 회장이신 김덕상(3기 싸토리우스코리아바이오텍㈜ 대표이사) 형님을 충실히 보좌하는 것은 저의 역할입니다. 특히 총동문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자리를 잡을수 있었던 것은 김성민 회장님의 희생과 봉사를 겸비한 저돌적인 리더십이었습니다. 현재 517명의 작은 조직이지만 멀지 않아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봉사에 대한 원동력은 EMBA에 대한 애정입니다. 동문들이 누구보다 사회에서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EMBA 안에서는 모두가 사회적인 지위를 떠나 순수해집니다. 저는 그 순수함이 좋습니다. 이번에 입학한 9기 신입생들에게 동문회 소개 자료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인연을 맺었습니다.” 후배들이 아름다운 인연을 느낄 수 있는 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MBA 재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 교수님 등도 함께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MBA 2년과정을 다시 한번 하라면 솔직히 자신은 없지만 다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재미있는 지옥이랄까? 회사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훌륭하신 교수님과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국내 주요기업의 핵심간부들인 동기로부

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주도 오리엔테이션, 발표준비와 시험, 클럽활동, 프랑스에서 "위해서"를 전파한 GRP, 서울의 숲에서 나무심기 봉사활동, ABP 발표, 졸업여행, 동기인 크라운제과 윤석빈 대표가 행사 때 마다 후원한 달달한 과자가 기억납니다. 2학년때 수강신청은 경매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1500점을 들고 싶은 과목에 배분하는 방식이었는데 선택과 포기의 전략으로 원하는 과목은 모두 들었습니다. 재학시절에는 과제물 없는 과목을 선호하였지만 오히려 졸업 후에는 듣지 못한 과목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시 돌아 간다면 듣지 못한 과목들을 꼭 듣고 싶습니다.

EMBA를 졸업하시고, 경영대학 CHRO(최고인사담당인원) 과정도 수료하셨습니다. EMBA와 CHRO, 두 과정 각각 입학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EMBA를 입학한 것은 46살의 적지 않은 나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20년 동안 앞만 보고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문득 돌이켜 생각해 보니 재충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입학 후 나이는 숫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더 나이 많은 형님과 누님들의 학구열은 대단하였습니다. 학습과 나이의 상관관계 그래프는 U자형 입니다. 동기 누님 중 한 분은 현재 본교 박사과정에서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EMBA를 하였으므로 CHRO 과정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고 국내 최초인 CHRO 과정 1기로 공부한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훌륭하신 교수님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경쟁력의 원천인 사람에 대해 고민하는 강의는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내 주요기업의 임원들로 구성된 동기들의 경험담은 수업 못지 않게 유익하였습니다. 지정좌석제를 통해 시간단위로 출결을 관리하고 토요일 보충강의가 기억에 남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 발전기금을 출연하셨고, 또 20년 약정을 하셨습니다. 발전기금 출연을 하시게 된 계기, 또 어떻게 사용 되기를 바라시는지요?

2015년 8월 혈액암 중 다발성골수종 3기 판정을 받았고 12월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습니다. 이식 후 경과가 좋아서 완치된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2월 재발판정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죽는구나. 어렵게 마음을 다시 잡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는 EMBA 동기들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금액의 성금도 받았습니다. 제가 동기들의 사랑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약속이 아닌 EMBA가 있게 한 학교와의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한해 한해 약속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다발성골수종의 생존기간은 그리 길지 않지만 저는 20년이라 믿습니다. 지금은 주1회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지만 하루 빨리 완치하여 자랑스러운 동문이 되고 싶습니다.

서울대 EMBA 와 경영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혹은 학교에 대한 바람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MBA는 인생에 있어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아마 영원히 공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욕을 먹을 각오로 건의합니다. 학교와 교수님들은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후배들을 지금보다 더 혹독하게 단련시켜 주세요.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동문경영포럼의 재개를 건의합니다. 교수님들로부터 강의를 들고 동문들도 만날 수 있었고 졸업 후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습관을 이어갈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강의가 있는 토요일은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EMBA 동기, 또 후배들에게 전하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틈틈이 운동이 필요하고 항상은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로 합니다. 앞선 질문에는 교수님들에게 후배들을 혹독한 단련을 주문하였고 본 질문에서는 후배들에게는 학창시절을 최대한 즐기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프로입니다.

EMBA는 인생에 있어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아마 영원히 공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대학 졸업생의 사회 진출

윤계섭 (본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는 1975년에 와서야 관악캠퍼스에서 비로소 종합대학교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 그리고 경영대학은 서울대학교 종합화 계획에 따라 상과대학으로부터 경영학과(정원100명)와 경영대학원(정원120명)을 합쳐서 교수 14명과 함께 출발하였다. 이번에 경영대학 40년 사를 처음으로 집필하면서 40년 동안 졸업생들의 사회 진출을 정리해 보았다.

#01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총동창회가 발간한 인명록(2016년)을 자료로 졸업 년도 순으로 정리하였다. 입학 년도 별로 정리한 인명록을 토대로 졸업 년도 별로 재정리하였는데 이는 상과대학 경영학과로 입학하였더라도 1975년도 이후에 졸업한 경영학과 학생은 경영대학 졸업으로 학위기를 받았기 때문이다.

경영대학의 비전이 우리나라 기업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졸업생의 사회 진출 동향은 매우 중요하다. 이 소고에서는 경영대학 졸업생의 진출 분야를 회사 (금융기관 제외), 금융기관, 공무원, 공인회계사, 법조계, 학계 및 연구기관, 기타로 구분하였다.

상대 동창회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상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는 이미 은퇴해서 무직인 경우와 해외에 있거나 국내에 있으면서 연락이 되지 않는 졸업생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경영학과 정원은 100명에서 시작하여 정부의 졸업정원제 실시로 300명 이상으로 늘었다가 최근에는 130명 수준으로 급감 하였는데 졸업생들의 직업 분포를 보면 당시 상황에 따라 직업 선택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명록 (1976~2015) 상의 총 졸업생 8064명을 위에서 설명한 구분으로 나누어 보면 표와 같다. 총계로 볼 때 경영대학 40년 동안 졸업생들이 취업한 분야는 회사 (29.6%) 금융기관 (17.0%) 공무원 (3.3%) 공인회계사 (5.3%) 법조계 (4.6%) 학계 및 연구기관 (5.1%) 기타 (5.5%) 사망 (0.6%) 미상 (29.0%)으로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회사와 금융기관이 36.6% 전문직이 15.0% 공무원 3.3% 등이다.

그러나 연도별로 볼 때 큰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경영대학 정원이 100명이었던 이들이 졸업한 1976년부터 83년까지 학계 및 연구기관 진출 숫자가 졸업생의 21.4%나 되는데, 이로 미루어 경영대학 출신이 우리나라 경영학계의 기초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경영학 교수의 수요는 1990년대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한편 1979년부터 시작한 IBRD 자금으로 3년 동안 300명의 국비유학생을 선발하여 파견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서울대 출신으로 이를 바탕으로 90년까지도 유학 붐이 불었다 이제는 경영대 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미국, 영국, 스페인, 프랑스, 홍콩 등 외국대학 교수로 직접 임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1965

◀ 1965년 경영대학원 개원

1969년 경영대학원 전경 ▶

1980

▲ 1980년 체육대회 경영대팀

◀ 1968년 경영대학원 졸업

▲ 1985년 사은회

◀ 1991년 선경경영관

▲ 1984년 관악9동 졸업식

02

경영학과의 꽃이라고 불리는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2004년까지 지원자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대학에서 합격생은 제일 많았다. 2006년부터 지원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응시자 대비 합격생 비율은 2014년까지 최고(17.5%)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으로 사법시험 합격자도 늘어 나고 있는데 1993년과 97년에는 공인회계사 합격자 수를 능가하더니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이 공식 출범했던 2009년부터 경영대학원 지원 보다 법학전문대학원 응시가 많아지더니 합격생 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2014년의 경우 경영대학원 합격자 수는 11명인데 법학 전문대학원 합격생 수는 17명이나 된다.)

일반 기업이나 금융기관 진출은 졸업정원제 실시로 입학정원이 대폭 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1997년 외환위기 전에는 일반회사가 많다가 외환위기 이후에는 금융기관이 많아졌다 이는 직업의 안정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상대적인 축소에 따라 일반 기업 진출이 다시 많아 지고 있다.

일반기업은 졸업 당시에는 흔히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지만 졸업 년수가 경과하면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전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창업하는 경우는 졸업 직후는 거의 없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가 많다. 시기는 벤처 창업 붐이 불었던 2000년 대 초기에 이직이 많았다. 컨설팅 업계의 바람이 불었는가 하면 투자자문이나 신용평가 등 당시 상황에 따라 진출 분야가 달라지고 있다. 상과대학 시절에는 많았던 행정고시 응시가 경영대학에 와서는 저조하다가 80년대 말부터 다시 늘어나서 공무원 진출이 많더니 94년 이후부터 다시 저조하다.

경영대 졸업생에 대한 취업 지도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다. 다른 대학에서 널리 있는 공인회계사 전문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취업률이 아주 높은 것은 우수한 학생들의 자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이직이나 전직이 많아 기업에서 원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 행한 입학정원의 급격한 감축은 2007년부터 130명으로 줄었는데 국내 다른 대학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입학 정원이 늘어나서 산업 간의 융합이 명제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네트워킹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출범 당시에 세계적으로 무명이었던 경영대학은 이제 영국의 유수한 대학 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에서 아시아 5위, 세계33위로 평가할 정도로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이제 우리나라 1위에 만족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더욱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표) 경영대학 졸업생의 사회 진출

년도	회사	금융기관	공무원	공인 회계사	법조계	학계& 연구기관	기타	사망	미상	합계
1976	40	9	1	4	2	21	2	4	25	108
1977	35	16	1	1	0	20	4	4	31	112
1978	28	9	6	4	2	23	6	3	36	117
1979	28	7	3	4	2	36	3	2	30	115
1980	34	13	3	5	0	31	5	3	17	111
1981	35	10	4	6	1	17	7	1	33	114
1982	28	24	2	10	0	28	6	1	21	120
1983	28	13	1	10	1	19	6	4	32	114
1984	30	12	6	3	1	6	2	3	39	102
1985	59	30	6	15	2	18	3	3	62	198
1986	76	44	5	6	2	20	5	2	102	262
1987	91	42	9	6	4	21	2	2	95	272
1988	105	48	12	2	11	21	5	7	94	305
1989	113	43	10	4	9	25	3	3	70	280
1990	99	52	19	4	5	15	4	2	62	262
1991	65	37	12	5	3	7	4	0	85	218
1992	63	22	15	6	7	13	4	0	72	202
1993	70	24	14	7	10	2	2	1	67	197
1994	49	34	11	6	6	8	14	1	74	203
1995	48	37	8	14	9	5	16		84	221
1996	67	26	4	7	6	8	16		98	232
1997	48	44	6	16	20	5	21	1	73	234
1998	49	44	11	21	9	6	14	1	57	212
1999	34	44	5	21	13	5	22		40	184
2000	58	46	7	25	9	5	18	1	62	231
2001	59	58	10	25	11	3	12		56	234
2002	73	56	6	24	21	2	9	1	63	255
2003	55	67	2	12	17		19		55	227
2004	55	48	3	11	22		15	1	70	225
2005	68	53	7	32	18	2	28		68	276
2006	71	46	10	17	14	4	16		40	218
2007	61	56	10	12	21	5	22		47	234
2008	60	43	6	12	18	4	18		43	204
2009	52	32	7	4	13		26		52	186
2010	75	48	8	4	5		14		65	219
2011	90	29	4	10	17		13		57	220
2012	74	30	2	18	17	1	11		71	224
2013	92	23	3	14	13	1	11		45	202
2014	70	27	6	15	17		18		71	224
2015	52	22	3	7	16	1	18		71	190
총계	**2387**	**1368**	**268**	**429**	**374**	**408**	**444**	**51**	**2335**	**8064**

이 통계 자료는 서울대 상대 총동창회가 발간한 (2016) 인명록을 토대로 김경우, 김지현 학생이 정리한 것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

10th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연혁

2006년

경영전문대학원 설립인가 (교육부)

Global MBA 신설 GMBA 1기 **45명 입학**

2007년

SNU MBA 신설 SMBA 1기 **22명 입학**

미국 듀크대 복수학위 협정 체결

2008년

중국 북경대, 프랑스 에섹대(ESSEC) 복수학위 협정 체결

2009년

Executive MBA 신설 1기 **43명 입학**

2010년

AACSB 재인증

숫자로 보는 MBA 10주년

2006년부터 서울대 경영대 MBA의 발전과 함께해 온 정성어린 마음들,
어느덧 10년이란 시간과 함께 우리의 기쁨으로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능성과 발전을 끌어 준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더 큰 미래를 그려갑니다.

2011년

교육부 캠퍼스아시아 사업단 선정

11월 동문 오찬 특강 실시, 현재까지 **20번의 특강 개최**

2012년

1년제에서 1.5년제 학제로 개편

GNAM(Global Network for Advanced Management) 가입

EMBA 총동문회 발족 (초대회장: E1 전용배 동문)

2013년

미국 예일대, 일본 히토츠바시대

복수학위 협정 체결

2014년

G,SMBA 총동문회 발족

(초대회장: S1 홍우승 동문)

2016년

7월

EMBA 439명, GMBA 425명,

SMBA 351명 총 1,215명 졸업

10월 현재

EMBA 7기, 8기, GMBA 10기, 11기,

SMBA 9기, 10기 재학 중

MBA

창업 동문

GOSMBA **22** 명

EMBA **15** 명

해외협정대학수

23 개

Incoming 교환(복수)학생수

복수학위생 **16** 명

교환학생(DBiK포함) **253** 명

Visiting Professor (외국인교수) 수

168 명

가장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기수

E2기 (30~59세) **29** 년

G6기 (22~42세) **20** 년

졸업 30주년을 맞이해 모인 서울대 경영대학 82학번!

'똥82'라고 불렸지만 누구보다 큰 꿈과 희망을 함께 나누었던 이들이 뭉쳤다. 지난 9월 23일, 서울대 경영대학 82학번 동문들의 '졸업 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가 열렸다. 금요일 저녁, 한주의 고단함을 잊은 채 전국 각지를 비롯해 미얀마 등에서 약 200여 명의 82학번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오랜시간 만나지 못 했던 어색함도 잊은 채, 지난 세월의 무정함이 미안한 듯 반가이 인사를 건네며 82학번 동문들만의 축제가 시작되었다. 특히 이번 82학번 홈커밍데이는 과거 홈커밍데이와는 다르게 기부문화 활성화로 사회에 대한 서울대인의 책임을 다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82학번 선배들이 경영대학의 발전과 후배들을 위해 모금한 약 5억 4천 7백여 만 원을 전달하는 뜻 깊은 자리기도 했다. 원재연 동문을 중심으로 뭉친 집행부를 통해 모금이 진행되었으며, 325명의 입학생 중 180여 명의 동문들이 참여했다. 또 이번 행사에는 82학번을 지도해 주셨던 곽수일, 신유근, 민상기, 임종원 교수님께서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셨다. 이번 행사의 추진위원장을 맡은 원재연 동문은 "졸업 30주년 행사에 82학번이 기록한 모금액과 180여 명의 참여는 서울대 경영대 사상 최고의 기록으로 힘을 모아준 82학번 친구들에게 감사하다."며, "서울대 경영대학이 세계의 대학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우리 모두가 이번 홈커밍데이의 주인공인 만큼 즐거운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86학번 홈커밍데이 "추억, 우정 그리고 감사"

지난 11월 18일 오후 6시 30분 경영대학 86학번 졸업생들이 입학 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를 가졌다. 꿈 많던 대학시절을 추억하고 친구들의 우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오늘이 있기까지 도움을 주신 은사님과 모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된 86학번 홈커밍데이에는 졸업생 100여명이 참석하여, 추억을 함께 나눴다. 86학번 대학시절 명강의를 들려주신 은사님들이 참석해 주시어 자리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이번 홈커밍데이에는 윤계섭, 임종원, 민상기, 조동성, 김영진, 곽수근 교수님이 함께하여 그 시절 스승과 제자로서 애틋함을 나눴다. 이날 86학번 졸업생들은 오후 5시부터 "추억산보"프로그램으로 관악 캠퍼스를 둘러보고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공식행사를 진행했다. 공식행사에는 발전기금 전달식, 은사님 덕담, 동기생 소감,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사회 각처에서 가정과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느라 오늘을 바쁘게 살던 졸업생들이 일상을 잠시 멈추고 다시 스무 살 청년의 앳된 모습으로 돌아간 하루였다. 행사에 참석한 86학번 졸업생들의 마음에 11월 18일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오래도록 간직되기를 바라본다.

제1회 EMBA 가을 뮤직 페스티발

돈 버는 기계에서 일상의 행복을 찾다!

경영전문대학원 Executive MBA(이하 EMBA) 학생회는 지난 10월 8일 오후 7시 서울대 풍산마당에서 가을 뮤직 페스티벌을 마련해 G/SMBA 동문은 물론 교수들까지 초청하여 축제 한마당을 벌였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 상호 취미를 공유하고 재능을 기부하는 경영전문대학원 동문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준비된 첫 번째 뮤직 페스티벌이다.

서울대학교 버들골 옛 노천강당 자리에 준공된 원형 공연장인 '풍산마당'에서 펼쳐진 이번 야외 공연은,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의 열정과 열기로 가득했다. 채준 EMBA 주임교수, 양홍석 EMBA 부주임교수를 비롯해 오후 6시까지 EMBA 수업을 막마친 박남규 교수, 노상규 교수 등도 참석하여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2부로 구성된 본 행사는 EMBA 7기 김정곤 학생의 사회로 막을 열고 변우석 EMBA 학생회장, 한규성 EMBA 부학생회장의 인사 말씀에 이어 채준 EMBA 주임교수의 환영사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1부는 EMBA 7기 김병수 학생의 피아노 연주 및 오케스트라 공연과 변우석 EMBA 총 학생회장 및 EMBA 7기 박정윤 학생의 성악 공연 등 개인 공연으로 구성되고, 2부는 서울대 교수밴드 '가락'의 공연을 시작으로 EMBA 록밴드 연주, 댄스 공연 등 단체 공연으로 이어졌다. 이번 뮤직 페스티벌은 연주자들의 전문성 짙은 공연으로 그 깊이를 더했다. 1부 화려한 성악 공연을 펼친 변우석 EMBA 학생회장은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은 2세 경영인이지만, 사실 그는 서울대 성악과와 이탈리아 밀라노 국립음대 대학원을 졸업한 후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로 일컫는 '밀라노 라스칼라 오페라극장' 정 단원 등 촉망 받는 테너의 길을 걷기도 했다. EMBA 7기 김병수 학생은 해병대 장교로 복무한 이색 경력의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엑스피아노'로 연주 앨범을 발매한 경력이 있다. 2부의 밴드 공연을 이끈 주역들 역시 반 전문 음악인이다. EMBA 7기 고봉수, 정인섭 학생은 삼성 그룹 직장인 밴드로 꾸준히 활동했다. EMBA 8기 이광호 학생은 학부 때 5인조 록밴드 블루웨이브의 보컬로서, 제24회 대학가요제 대구 · 경북지역 예선에서 1위로 입상한 데 이어 본선 진출 자격을 획득한 경력이 있다. 그 외, EMBA 8기 김효진, 한선옥, 박미내 학생의 S.E.S 댄스 공연, EMBA 8기 '어둠의 자식들'의 댄스 공연 등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에서 재미있는 무대를 준비해 흥을 돋우었다.

이처럼 이번 공연은 음악이라는 관심사로 재능과 취미를 공유하는 EMBA 문화를 바탕으로, 참석한 경영전문대학원 동문 모두에게 넘치는 에너지를 전파했다. 3 · 40대 직장인 50% 이상이 스스로 돈 버는 기계처럼 느껴진다고 답변한 통계가 있다. 이 중 취미가 없는 직장인은 그렇지 못한 직장인에 비해 그 정도가 10% 이상 높았다. (출처: 취업포털 잡코리아, 2016.08) 이에 따르면, 평균 연령 40세 직장인으로 구성된 EMBA 과정은 돈 버는 기계에서 벗어나 학업과 취미생활을 통해 일상의 만족을 찾아가는 전형적인 지름길로 보인다.

새벽까지 야근 업무를 하면서도 주말이면 MBA 공부를 하고 그에 더해 재능을 살려 취미 생활까지 즐기는 EMBA 학생들의 빡빡한 일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EMBA는 대한민국의 허리이자 모든 직장인의 이상향이 아닐까 한다.

서울대학교 MBA,
한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합니다.

세계적인 교수진, 놀라운 취업실적과 연봉상승률,
국내 최고의 동문네트워크와 합리적인 교육비까지
대한민국 MBA교육의 중심은 서울대학교입니다.

프로그램	Global MBA(GMBA)	SNU MBA(SMBA)	Executive MBA(EMBA)
수업연한	1.5년 4학기제		2년 4학기제
수업시간	평일 주간 수업 오전 09:00-13:00, 오후 14:00-18:00		금요일 15:00-19:00 토요일 09:00-18:00
강의언어	영어	한국어 50% 영어 50%	한국어
모집시기	연 1회 상반기 (2~3월경)		연 1회 하반기 (9~10월경)
입학 및 개강	8월 중순		3월 초
수여학위	경영전문석사 (MBA)		

홈페이지 http://gsb.snu.ac.kr 서울대 MBA 검색

입학문의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행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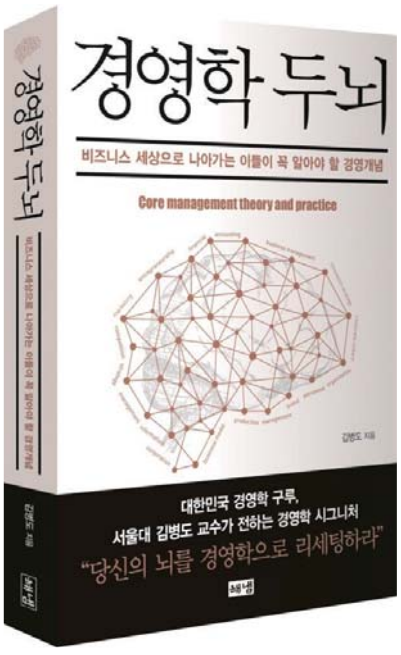
주간MBA (02)880-2551, 1334

주말EMBA (02)880-2521, 1332

SNU BUSINESS SCHOOL

경영학 두뇌 “당신의 뇌를 경영학으로 리세팅하라”

저자: 서울대 경영대학 김병도 교수



아이스커피가 핫커피보다 비싼 이유

얼마 전 한 텔레비전 방송 제작진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많은 커피전문점이 아이스커피를 핫커피보다 비싸게 파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었다. 두 커피의 원가 차이는 거의 없는데 아이스커피 가격이 평균 500원 이상 비싼 이유가 궁금했던 모양이다. 난 기업이 가격을 결정할 때 원가 외에도 경쟁 정도, 소비자의 가치 평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이스커피와 핫커피의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기업의 가격 차별화 정책 때문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커피 가격 차이에 대한 나의 설명을 경청하던 방송 제작진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날씨가 더워져 목마름을 호소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간파해 얼음 몇 조각 넣고 가격을 천원이나 올려 받는 커피전문점의 얄팍한 상술이 제작진의 심기를 건드렸던 모양이다. 난 커피전문점의 가격 차별화 정책이 윤리적으로 정당할 수 있는 이유를 제작진에 설명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보다 많은 국민이 경영학적 사고를 해 줄 것을 희망하며…

지금 생각해 보니 필자가 ‘경영학 두뇌’ 집필을 결심하는 데 위 사건이 큰 역할을 한 것 같다. 많은 기업인들은 규제와 반기업정서가 대한민국에서 회사를 경영하는데 있어 가장 넘기 어려운 두 장애물이라 말한다. 난 반기업정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민들이 기업과 경영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라 확신한다. 예컨대 기업 경영을 이해하면 아이스커피와 핫커피 가격이 다른 것이 윤리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말이다.

일반인들을 위한 경제학 도서는 넘쳐나지만 정작 우리의 생활과 직결돼 있는 경영에 대한 대중적 입문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늘날 기업은 세계 인구의 81퍼센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 세계 국민총생산의 94퍼센트를 책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참 이상한 현상이다. ‘경영마인드’야말로 지금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난 확신한다. 이 책은 경영학적 사고를 하는 데 필요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다.

경영학으로 당신의 두뇌를 리셋하라

물리학이나 경제학 같은 기초 학문과는 달리 경영학에는 통일된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경영학은 그 시대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면서 발전해 온 응용 학문이기 때문이다. 인사조직, 회계, 마케팅, 전략, 재무금융, 생산, 경영정보 등 세부 전공 간 학문적 교류가 원활하지 않아 한 권의 책으로 모든 내용을 담아내기도 쉽지 않다. ‘경영학 두뇌’는 방대한 경영학 지식 중 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77가지 개념을 친절히 설명하고 있다. 누구도 체계적인 과학 지식 없이 달이 유인 우주선을 발사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의료 행위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규정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경영 지식 없이도 기업 경영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기업 환경이 복잡해지고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경영은 더 이상 상식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활동이 아니다. ‘경영학 두뇌’가 제시하는 경영 철학과 개념들로 여러분의 두뇌를 각인시켜 보다 확신을 갖고 경영 현안을 처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결정적 사건 기법: 융합시대 소비자 반응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자

A critical incident approach to consumer response in the smartphone market: product, service and contents

(Information Systems and e-Business Management, May 2016)

Yoonsun Oh, Jungsuk Oh

01.

무엇을 연구했나

융합시대가 만개하면서 더이상 제품, 서비스, 콘텐츠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만물이 인터넷에 접속되고 플랫폼에 속하게 되면서 지능이 부여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들이 얹혀지게 된다. 스마트폰 산업만 보더라도, 스마트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용편이성, 앱/콘텐츠 보유량, 네트워크/통화품질, 화면크기, A/S만족도, 제품 안정성 등등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들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에 따라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시장점유율과 수익성은 주기적으로 변화해 왔다. 소비자의 품질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사 입장에서 네트워크 사업자, 앱/콘텐츠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부품공급업자 등 다양한 영역의 사업자들과 긴밀하게 협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기존 제품위주의 공급사슬의 범위를 관련 서비스와 콘텐츠 영역까지 넓혀 관리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융합상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제품, 서비스, 콘텐츠 등과 같이 특성이 매우 상이한 영역에 분포해 있을 경우에는 각 영역별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들이 복합적으로 소비자 인

자동차와는 달리 스마트폰은 소비자 비용 지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점이 긍정적 사건들의 영향력을 더 크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지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통화품질, 네트워크 속도 등의 품질요인과 고품질의 앱과 서비스의 제공여부 등은 사용자 개인별 인식의 편차도 크고 측정 단위도 다양하기에 이들이 총체적인 소비자 품질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접근방식이 "결정적 사건 기법(CIT = Critical Incident Technique)"이다. 결정적 사건 기법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서비스/콘텐츠를 사용하는 기간 중 기억에 남는 "결정적인 사건"들을 서술하도록 유도한다. 이 경험들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기억에 남을 정도의 경험이니 만큼 소비자의 의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결정적 사건 기법은 소비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은 사건들을 기술하므로 연구자가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요인들을 놓칠 우려가 없고 이 요인의 범주를 미리 정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유연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02.

어떻게 연구했나

795명의 소비자 설문은 다음과 같은 두 단계를 거쳐 분석되었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각 응답자별로 스마트폰 사용 시 5개 까지의 기억에 남는 결정적 사건들을 열거하도록 했다. 이 중 특히 매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험들만 추려 1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을 분석해 본 결과 스마트폰 제품 자체, 제품관련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의 네가지 대분류로 묶는 것이 가능했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위에서 도출한 13개의 그룹 요인들에 대해 각 요인별로 긍정적, 부정적인 결정적 사건을 겪은 횟수를 질문하였다. 또 소비자들의 의견, 즉, 제품 충성도와 구전의도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는데 특히 제조사, 통신사, 콘텐츠 제공사에 대해 각각 질문하여 어떤 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03.

무엇을 발견했나

결정적 사건 기법을 적용한 기존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결정적 사건들이 긍정적 사건보다 소비자 반응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들이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경우, 긍정적 사건들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연구들은 자동차 등과 같이 교체수요가 주를 이루는 성숙단계의 시장을 대상으로 결정적 사건 기법을 적용한 반면 연구가 진행된 시점 스마트폰 산업은 혁신제품산업으로 아직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던 상황이었다. 즉, 혁신제품이면서 제품주기상 시장이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긍정적 사건들의 영향이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한 시사점이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동차와는 달리 스마트폰은 소비자 비용 지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점이 긍정적 사건들의 영향력을 더 크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제품, 제품관련 서비스, 네트워크, 콘텐츠의 영역 들 중에는 네트워크영역 관련 요인들 중 특히 긍정적 사건들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무선데이터 통신에 대한 사용자들의 기대치가 낮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능을 접하며 일종의 신선한 경험을 제공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콘텐츠 영역의 경우 긍정적, 부정적 요인들이 모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을 쓰는 궁극적인 이유는 콘텐츠/서비스 이용임을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제조사,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콘텐츠 제공자들 중에서는 제조사가 모든 요인들의 영향을 제일 강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자의 전체 경험에는 제조사가 직접 관리할 수 없는 네트워크, 콘텐츠 영역의 품질들이 중요하지만 이 경험들의 결과는 제조사가 책임져야 함을 의미한다. 결국 제조사는 네트워크 사업자 및 콘텐츠 제공자들과 같이 융합산업의 가치사슬에 연관된 타 영역의 사업자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총체적인 고객만족을 위해 투자하고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오 정 석 교 수

주식의 수요, 공급곡선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연구

Investors' interacting demand and supply curves for common stocks
(Review of Finance (2016) 20 (4): 1517-1547)
Martin Dierker, Jung-Wook Kim, Jason Lee, Randall Morck

무엇을 연구했나 01

재화의 수요와 공급곡선은 가격 탄력성으로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으며 경제분석, 법경제학 분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주식의 수요, 공급곡선의 가격탄력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이에 대한 전통적 재무이론의 입장은 효율적 시장가설과 관련해 설명할 수 있다. 효율적 시장가설은 두 가지 가정하에 서 있다. 첫째는 합리적 투자자들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동질적인 기대homogenous expectation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저평가된 주식은 매수하고 고평가된 주식은 매도하는 차익거래가 완벽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가정하에 주식의 수요, 공급곡선은 투자자들에 의해 공유된 주식가격수준에서 수평선으로 결정된다. 달리 말하면 합리적인 투자자들이 정확히 예측한 가격수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가격은 균형에서 존재할 수 없다. 만일 균형가격에서 조금이라도 낮게 가격이 형성되면 주식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가격은 상승한다. 반대로 균형가격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이 형성되면 주식의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이고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듯 전통적 자산가격 결정모형들은 대부분 자산의 수요, 공급곡선이 무한대의 가격탄력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적 연구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효율성을 지지하지 않는다. 기존의 연구들은 현실의 경우 사적정보private information의 존재, 투자자들 사이의 이질적 기대heterogeneous expectation 등으로 수요와 공급곡선의 가격탄력성이 유한한 값을 가짐을 보였다. 이번에 소개하는 연구는 간단한 모형을 통해 사적정보와 기대 이질성이 존재하는 경우 유한한 값을 가지는 주식의 수요, 공급곡선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 지를 보이고 이 모형의 예측을 한국의 데이터를 이용해 실증한 것이다. 특히 분석자료가 1998년 외환위기 시기를 포함하고 있어 큰 경제적 위기 주변기간에서 주식의 수요, 공급곡선의 가격탄력성이 보이는 특징적 변화를 보고했다.

어떻게 연구했고 무엇을 발견했나 02

주식의 수요, 공급곡선의 기울기를 추정하려면 주문이 들어온 모든 가격수준에서 수요량, 또는 공급량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얻기 힘들다. 따라서 미국 등의 자료에 기반한 연구들에서는 직접 수요, 공급곡선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방식대신 새로운 정보가 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거래일들을 특정하고 이때 새로운 정보와 상관없는 수요나 공급의 변화에 기인한 가격변화로 가격탄력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경우 수평선인 수요, 공급곡선을 가정하는 전통적 재무이론에 의하면 가격변화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만일 가격변화가 있다면 그 가격 변화를 통해 유한한 수요 또는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역산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의 변화 없이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만 있는 날을 특정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기업이 상장할 때 상장가격이 auction 방식으로 정해지는 경우를 이용해 주식의 수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직접 측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기울기를 직접 계산했다는 의미에서 진일보한 방식이지만 상장일이 일반적인 거래일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정가 주문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료의 특징을 이용했다. 지정가 주문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구입하려는 가격과 수량을 지정하는 주문방식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분석기간동안 95% 정도의 주문이 지정가 주문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주식의 수요곡선, 공급곡선의 가격탄력성을 각 주식별로 매 거래일 마다 오전과 오후 두 시점에서 직접 측정할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논문의 모형은 위험기피계수, 불확실성등 모형의 변수가 단기에서는 고정되었다고 가정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이 주식의 내재가치에 대해 상이한 기대를 한다면 주식의 수요와 공급곡선의 가격탄력성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이러한 예측에 부합했다. 수요 곡선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경우에는 공급곡선의 가격 탄력성은 작고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했다. 이러한 발견은 가격변화를 이용해 기울기를 역산하는 기존의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격 변화를 통해 수요 곡선이나 공급곡선의 기울기를 역산하기 위해서는 수요, 또는 공급곡선이 안정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수요나 공급곡선의 가격탄력성이 사적인 정보가 시장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크기로 반응한다면 간접적 추정치에는 편의bias가 생기게 된다. 실제로 미국의 데이터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추정된 탄력성 수치와 본 연구에서 추정된 수치와는(미국과 한국의 제도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두배에서 세배이상 차이가 나 편의의 크기가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논문의 모형은 모형의 변수가 변할 수 있는 장기에서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동일한 추세trend를 가지게 되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됨을 보였다. 이 예측 역시 실증결과와 부합했다. 시계열 자료를 보면 가격탄력성의 크기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1998년 외환위기 전후 그 크기가 확실히 구분되는 특징을 보였다. 1998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약 35정도였는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20정도로 40%이상 감소했다. 공급곡선의 경우도 비슷한 감소를 보였다. 수요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감소했다는 것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더 커졌다는 것으로 수평선으로부터의 이격이 더 심해진 것을 의미한다. 수요, 공급곡선의 가격탄력성 하락은 외환위기 이후 주가지수나 불확실성 척도 들이 외환위기 이전으로 회복되고 나서도 계속 관측이 되었다. 이는 투자자들의 위험기피성향이 커진 경우에만 가능한데, 비록 금융위기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객관적 위험 척도와 상관없이 장기간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기관투자자들에 비해 개인투자자들에게서 더 크게 관측되었다.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03

주식의 수요, 공급곡선이 유한한 가격탄력성을 가진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내재가치에 대한 새로운 정보 유입이 없는 경우에도 수요, 공급의 변화에 의해 큰 가격 변동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주식가격이 내재가치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변한다는 Shiller 교수(2013 Nobel 경제학상) 의 excess volatility현상에 대한 간접적인 설명이 된다. 투자자의 심리, 선호 등의 변화에 기인한 수급 변화가 있을 경우 가격이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외환위기 이후 가격탄력성이 급격하게 하락한 것은 큰 위기를 경험한 주식시장의 경우, 위기가 끝난 후에도 상당 기간동안 정보 이외의 요인에 의해 주식가격이 영향을 받는 정도가 더 커졌음을 의미한다. 한편, 많은 이들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시장이 보다 효율적이 되어 가격탄력성이 더 커질 것을 예상했다. 그러나 가격탄력성의 크기가 오히려 작아졌고 이는 주관적 위험인식의 효과가 얼마나 큰 지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라고도 할 수 있다. 저자는 후속 연구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기울기의 상대적 크기가 미래 주식 수익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분석 중에 있다.

김 정 욱 교 수

레드오션에서 살아남기: 한국 커피 프랜차이즈에 대한 고찰

Surviving in the Red Ocean: measuring factors for business excellence among coffee franchises in Korea

(Total Quality Management & Business Excellence, Volume 27, June 2016)

Changhee Kim, Sanghoon Lee , Soo Wook Kim

한국의 커피 시장이 확대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커피 전문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프랜차이즈는 물론, 개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점포까지 다양한 종류의 커피 전문점이 개점하고 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로, 개점하는 점포만큼 폐점하는 곳도 많다. 기존 인스턴트 커피 위주의 시장에서 현재 한국에는 스타벅스 커피, 할리스 커피, 투썸 플레이스, 이디야 커피 등 다양한 커피 전문점이 존재한다. 작년 커피 수입량은 139,764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한국에서의 커피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니, 다양한 커피 전문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 그 중 수백 개에서 천여 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혹은 직영점을 거느린 국내 상위 7개 커피전문점(매출 기준)으로는 스타벅스, 커피빈,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이디야커피, 할리스, 탐앤탐스가 있다. 이 7개 커피전문점이 2013년에 벌어들인 매출은 총 1조 2천억 원이며,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은 6.7%, 총 매장 수는 4,536개이다(2014년 10월 기준).

본 연구는 현재 커피숍 업계 전반이 고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요소에 있어 적절한 만족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위 4개의 커피 프랜차이즈(스타벅스, 커피빈, 이디야커피, 카페베네)의 상대적인 효율성을 알아보고, 상대적인 효율성이 높은 커피 프랜차이즈와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커피 프랜차이즈들의 서비스 품질 요소를 중요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도출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현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나 혹은 미래에 커피전문점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 잠재적 운영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서비스 품질 요소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01 분석결과

DEA 분석 결과, 이디야 커피가 5년 연속 가장 효율적인 커피 프랜차이즈 였으며, 카페베네가 가장 비효율적인 매장으로 나타났다. 이디야의 경우 2010년 300개의 매장에 불과하였지만 창업의 높은 효율성이 언론 등에 보도되면서, 가맹점 수가 타 커피 전문점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나 2014년 기준 1,249개의 가맹점을 보유하는 등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투입 대비 산출의 높은 효율성이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수를 늘려 market share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IPA 분석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들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1사분면은 소비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문으로 현재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어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되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

다. 이에 해당하는 지표들은 직원의 친절함, 인테리어 디자인, 커피의 다양성, 커피 프랜차이즈의 위치, 브랜드 인지도 등이다.

둘째, 2사분면은 소비자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성취도는 매우 낮은 부문으로써, 개선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하는 지표들이다. 커피의 가격, 브랜드 이미지, 멤버십 혜택, 커피의 맛과 질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3사분면은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낮지만 커피 프랜차이즈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속성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지표들은 교통, 작업 환경, 종업원들의 지식, 사이드 디쉬의 가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4사분면은 현재 낮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지만 고객들의 만족도는 높은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지표들은 운영 시간, 사이드 디쉬의 맛, 사이드 디쉬의 다양성, 커피의 신선도, 매장 청결도 등이 있고 이들은 현재 과잉 상태로 현재의 노력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중 매장 청결도와 같은 요인은 위생 요소(Hygiene Factor)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장 청결도에 대한 만족도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

02 결론

본 연구에서는 Correlation Analysis를 통해 커피 프랜차이즈 산업의 주요한 Input 요소인 제품 원가, 급여, 인테리어 등을 도출하고, Output 요소인 영업 이익을 도출하였다. 이를 이용한 Data Envelopment Analysis에서 대표적인 한국의 커피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 커피빈, 카페베네, 이디야 커피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여 가장 높은 효율성을 가진 커피전문점 기업이 이디야커피라는 결론을 얻었다. 최근 이디야커피의 급격한 성장이 이러한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매출 1위를 지켜나가는 스타벅스의 상대적 효율성 역시 이디야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가 고급화 전략을 유지하면서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원가에서 높은 효율을 가질 수 있도록 제품 공급 및 커피와 디저트의 제조 프로세스를 개선해보거나,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인다면 운영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한국의 커피 전문점 중 유일하게 매출이 하락세를 보인 카페베네의 경우 그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결과를 얻었다. 카페베네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여와 커피 및 디저트 제조원가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커피빈 역시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다고 분석되었으므로, 다른 커피전문점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효율성 분석을 바탕으로 커피 프랜차이즈를 이용하는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AHP-IPA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인테리어는 중요도와 만족도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앞선 DEA 분석에서 인테리어에 과잉 투자하여 이디야 커피에 비해 상대적 효율성이 낮았던 스타벅스의 경우, 브랜도 인지도가 가장 높으며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중 매출액이 1위라는 점은 이와 같은 인테리어에의 투자 덕분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소비자가 진정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가치는 커피의 가격임을 알 수 있다. 커피의 가격은 2사분면에 위치하여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2014년 기준 아메리카노커피 한 잔에 이디야 커피는 2,500원, 카페베네는 3,800원, 스타벅스는 3,900원, 커피빈은 4,300원이라는 점에서 이디야 커피의 최근 상승세와 매장 수의 증가, 높은 효율성 등이 설명된다.

셋째, 사이드 디쉬의 경우 맛과 가격, 다양성 모두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커피 프랜차이즈가 Side Dish에 투자하기 보다는 본질에 맞게 커피와 관련된 다른 부분에 투자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로, 멤버십 및 제휴 혜택이 2사분면에 위치하여 만족도가 낮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한국의 통신사 할인, 카드 할인 등이 각 업체마다 1~2개만 적용되는 등의 소비자 불편함에 기인한 것으로, 커피 프랜차이즈는 고객의 만족도 증가를 위해 멤버십 혜택을 늘려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Location이라는 변수가 1사분면과 4사분면의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값임을 알 수 있다. 현재 국내의 소비자들 중에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의 커피 가격과 시골의 커피 가격이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부 있음이 설문 조사 시 포착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커피 프랜차이즈는 고객의 만족도를 위하여 Location 별 가격 차별화 전략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한국의 커피 수입량은 매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소비량이 세계 6위에 달한다. 2008년 커피 전문점 수는 고작 3,600개 정도에서 2014년 18,000개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의 커피 프랜차이즈는 그동안 많은 성장을 해왔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Red Ocean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커피 프랜차이즈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진정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이 연구가 발전의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 수 욱 교 수

삼성을 통해서 본 경쟁적 협력 시스템의 효용성

Dynamic Capabilities at Samsung: Optimizing Internal Co-opetition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Vol. 58 No. 4, Summer 2016; (pp. 118-140))
Jaeyong Song, Kyungmook Lee, Tarun Khanna

무엇을 연구했나 01

이 논문에서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세계 시장점유율 1위로 올라서게 된 원천의 하나인 삼성 특유의 내부 경쟁적 협력 internal co-opetition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였다.

다각화된 사업 구조를 가진 대규모 기업에서 사업간의 긴밀한 협력과 치열한 경쟁을 조화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협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경쟁력이 높은 사업에서 경쟁력이 낮은 사업을 지원하면서 모두의 경쟁력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 반대로 내부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다각화된 기업에서 경영의 핵심은 내부 사업간 경쟁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치밀한 협력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다각화된 기업에서는 경쟁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로 봐주기가,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사업부 이기주의가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삼성은 신경영 이후, 특히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이후에는 계열사 혹은 사업부문 간에 꼭 필요한 경우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시장경쟁 메커니즘을 적극 도입하여 경쟁과 협력의 조화를 추구했다. 또한 수직적 계열화 체제에도 변화를 도모하여 주요 소재와 부품에 대해 내부 벤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벤더로부터도 소싱을 하는 듀얼 소싱 dual sourcing을 추구했고, 이를 통해 내부 벤더와 외부 벤더를 경쟁시켜 목표하는 품질과 조달 가격을 확보하는 경쟁적 협력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 작년에 큰 문제가 되었던 갤럭시 노트 7 스마트폰의 배터리의 경우에도 삼성SDI와 중국의 ATL로부터 듀얼 소싱을 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삼성의 동태적 역량 dynamic capabilities의 원천으로서의 경쟁적 협력의 이론적 기반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본래 경쟁적 협력의 개념은 독립적인 기업들 간의 경쟁과 협력의 조화를 도모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 정의한 내부적인 경쟁적 협력 체제는 그룹 내부에서 계열사 간, 또는 사업부 간의 경쟁과 협력의 조화와 긴장 관계를 촉진시킨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기존 게임이론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삼성의 스마트폰 사례를 중심으로 삼성이 무선사업부,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 내부 사업 부문간에 어떻게 경쟁과 협력의 이중적 관계를 발전시켜 왔는지를 집중 분석하였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듀얼 소싱의 메커니즘과 효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특정 미래 기술에 대해 복수의 계열사/사업 부문이 경쟁적으로 동시에 기술을 개발하는 병행 개발 parallel development의 메커니즘과 효과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쟁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삼성 내부의 다양한 조직적 기제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쟁적 협력 시스템이 어떻게 삼성의 동태적 역량을 창출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경 묵 교 수

송 재 용 교 수

어떻게 연구했나 02

이 논문은 저자들이 2005년부터 10년 이상 연구한 '삼성웨이'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저자들은 삼성의 고위 임원 80여 명과의 인터뷰와 심층적인 자료 조사, 분석을 기반으로 한 사례 연구를 통해, 이 논문과 함께 McGraw Hill 등을 통해 다수의 언어로 번역 출판된 '삼성웨이' 책 및 2011년에 나온 Harvard Business Review 논문을 작성하였다.

연구결과가 주는 시사점 03

한국 기업들은 수직적 계열화를 통한 협력 시너지 창출에 대해서 거의 맹신에 가까운 믿음을 가지고 주력 사업을 중심으로 수직적 계열화 체제를 구축해 왔다. 하지만 구미 기업들은 1990년대 이후 수직적 계열화를 약화하거나 심지어 해체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수직적 계열화는 잘 관리가 된다면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차별적인 제품을 신속히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 협력만을 강조하다 보면 소재, 부품계열사의 모기업에 대한 의존성 심화로 인해 동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글로벌 초경쟁과 저성장으로 특징 지어지는 최근의 경영 패러다임 변화 상황에서는 수직적 계열화의 문제점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에 옥석을 가려서 비핵심 소재/부품은 아웃소싱이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외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부 벤더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삼성이 잘 발전시켜 온 것과 같은 듀얼 소싱 기반의 '경쟁적 협력' 체제를 도입하여 내부 거래에도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함으로써 내부 벤더의 의존성 심화로 인한 원가, 품질 저하 문제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국채 신용등급 조정은 주식 유동성(Liquidity)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Sovereign debt ratings and stock liquidity around the World

(Journal of Banking & Finance, Volume 73, December 2016, Pages 99-112)

Kuan-Hui Lee, Horacio Sapriza, Yangru Wu

주식 유동성은 시장에 유동성이 증발dried-up 되는 금융위기 상황을 거치면서 특히나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원하는 때 제 값에 팔 수가 없으면 구매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가격을 할인해야 하는데 이때 할인되는 만큼의 비용이 유동성 비용이다. 예를 들어 네이버 주식의 유동성이 풍부한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많아 거래가 활발한 경우)에는 80만원(적정가치라 하자)에 100주를 파는 것이 힘들지 않겠지만,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판매자만 있고 구매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정가치인 80만원이 아닌, 이를테면 79만 9,000원에 주식을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1,000원의 할인액은 네이버의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럼 이 유동성 비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일까? 위의 예에서 왜 유동성 비용은 900원이 아니라 1,000원인 것일까? 왜 지난달에는 유동성이 풍부했던 주식에 대해 구매자들이 다 사라진 것일까? 유동성 비용이 어떠한 동력에 의해서 변화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간의 연구들이 주식의 특성이나 시장 상황의 변화를 주된 동력으로 연구한 것과 달리 국채의 신용등급 조정이 주식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국채 등급의 조정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 (등급이 내려가면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는 등). 하지만 그것이 주식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본 논문이 처음 연구한 것이다. 국채 등급 조정이 주식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몇 가지 채널을 생각해 볼수 있다. 우선, 투자자들의 주식대량 판매를

통한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채등급이 떨어질 경우 외국인투자자 들이 그 나라에서 이탈한다는 것이 선행연구에 의해 알려져 있는데, 투자자들의 이탈은 주식의 대량 판매를 수반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이는 시장에 이와 같은 대량 판매를 받아줄 수 있는 유동성이 없을 경우 (firesale로 인한) 상당한 양의 가격할인, 즉 유동성 비용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국채 등급의 하향 조정은 많은 경우 해당국가 기업들의 국제적인 자본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기업이 자본조달 행위를 통해 시장에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를테면 자본조달의 과정에서는 기업들이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많은 정보를 공시하게 된다)을 생각해 볼때, 자본조달의 제약은 기업에 대한 정보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보불균형이 심한 주식들의 유동성이 그렇지 않은 주식들의 유동성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미 보여준 내용이다. 또다른 채널은 국채 등급 하향에 의해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경우 해당 국가 은행들의 자본 제공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주식가격의 폭락은 은행들이 보유한 담보의 가치하락을 가져오며 이는 그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린 투자자들이 마진콜 margin call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포지션을 정리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른 주식들을 팔아서 마진콜에 대응하는 경우 이렇게 팔린 주식들의 가격 하락은 이들 주식을 담보로 투자한 투자자들의 또다른 마진콜을 불러오고, 이러한 악순환은 결국 시장 유동성의 고갈로 이어지게 된다(liquidity spiral).

전세계 40개국가의 보통주들을 1990년부터 2009년까지 분석한 본 논문의 실증연구는 실제로 국채 등급 조정이 주식 유동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국채 등급의 상향 조정이 주식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반면, 하향 조정은 훨씬 큰 영향 (유동성 하락)을 미치며 이는 특히 국채 등급이 투자 적격 등급에서 부적격 등급으로 하향될 경우 더욱 크게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또한 국채 등급 조정의 주식유동성에 대한 영향은 그 국가의 투명성이 낮고 (정보비대칭이 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많고 정치적 위험이 높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뺄 동기가 더욱 강고하고) 국가에서 더욱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주식 유동성의 변화를 설명하는 추가적인 요인을 제시한 것과 함께 국채 등급의 하향 조정이 가져올 또다른 측면의, 또는 지금까지 연구에서 관심이 주어지지 않았던, 비용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관 휘 교 수

마음의 소리를 나눌 수 있는 곳

경청 經聽(傾聽)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은 지난 1월 2일 학생상담센터 "경청"을 개소했다. 최근 심리적, 학습, 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증가하고,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대한 효과적 대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현실을 반영한 학생상담센터 개소는 지난 6개월에 걸쳐 설문조사와 학내 상담센터 리서치 등을 걸쳐 진행됐다. 학생상담센터 <경청>은 11월에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생상담센터 이름 공모전을 시행 하여 선정된 이름으로 "학생들의 생각과 마음을 넓게 헤아린다."라는 의미와 이를 확장하여 "경영대학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경영대학 학생상담센터 경청은 경영대학 인트라넷을 통해 간편하게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상담, 심리검사, 해석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대 구성원의 작은 고민부터 큰 걱정까지 도움을 줄 예정이다. 김소희 상담 심리 전문가는 "경영대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속 깊은 소리를 듣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며,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외부의 시선과 평가 등에 대한 스트레스, 우울, 불안, 긴장 등으로 힘들 때 주저하지 말고 "경청"에 노크해달라"고 말했다. "경청"이 마음이 지친 경영대 구성원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해 본다.

연락처 T 02-880-6984 biz-counsel@snu.ac.kr (위치 : 58동 210호)

제 5회 베스트 심포지엄
Innovation by Design Thinking

Collaboration Makes Excellence!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은 지난 11월 10일, 11일 양일에 걸쳐 제 5회 베스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은 2011년 중국의 북경대학교 일본 히토쓰바시대학교와 연구, 교육, 산학협력 측면에서 전방위적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한중일 경제와 기업교류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BEST Alliance 협정을 맺은바 있다. 2012년 제 1회 학술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올해로 5번째 맞는 이번 심포지엄은 "Innovation by Design Thinking"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심포지엄은 11월 10일(목), 11일(금) 양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0일에는 재 북경대학교 경영대학 동문 및 자문위원들과 내외빈이 모여 환영만찬을 진행했고, 11일 경영대학 수펙스홀 (SUPEX Hall)에서 한중일 3개국의 교수가 함께 연구해온 공동연구성과 발표가 진행됐다. 이 날 기조연설은 "Total Strategy Management(TSM): Design Thinking Extended to Strategy" 라는 주제로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과 "Innovation Culture as Strategy: Using Design Thinking to Transform Culture." 라는 주제로 크리스토퍼 한 SAP Design& Co-Innovation 센터장의 연설이 있었다. 한국, 중국, 일본 3국 교육부 공동 지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의 배경에는 서울대, 북경대, 히토쓰바시대 3개 대학 경영대학(원)이 2011년 1월 체결한 BEST (Beijing-Seoul-Tokyo) Business School Alliance(약칭 BEST Alliance)가 있다. 본 협정은 한중일 3국의 최고 경영대학 간의 전방위적 동맹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한국을 동아시아 경영교육의 허브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아시아 경영교육의 최대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실제로 BEST Alliance는 2011년 3개국 교육부가 선정하는 캠퍼스아시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우수케이스로 선정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진행했으며, 지난 11월 본 사업에도 선정되어, 향후 5년간도 사업 기간이 연장되어 진행하게 되었다. BEST Alliance를 기반으로 서울대 경영대학은 북경대, 히토쓰바시대와 3개 대학 교수진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매해 선정, 연구지원하며, 교환학생, 복수학위, 단기연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학생교류 프로그램 등을 활발히 운영 중이다.

본 심포지엄 행사에는 좀더 견고한 결속력과 교류를 다짐하며, 향후 5년간의 협약을 다짐하는 협약식이 개최되었으며, 이후 우리대학 교수진과 중 일 양에서 온 공동연구 발표자들의 연구발표가 있었다. 행사를 총괄하고 준비한 오정석 기획부학장은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3개국의 대표 경영대학들이 모여 컨소시엄을 이루고, 이를 통해 경쟁우위를 얻는 것은 대단히 뜻 깊은 일이며, 앞으로도 좀 더 밀접하게 교류하여, 학부, MBA 등 많은 학생들이 새로운 배움과 기회의 장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6 학술 연구 주제 발표

- We Have Feelings But We Can't Show Them! Authoritarian Leadership, Group Emotion Suppression Climate, and Group Performance
  - Jack Ting-Ju Chiang(PKU),Satoshi Akutsu(ICS), Jih-yu Mao(PKU)
- Strategic Responses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SR among Chinese Public Firms
  - YanLong Zhang (PKU), Sun Hyun Park(SNU)
- Innovation, Creativity, and Conflict in the Globalized Workplace
  - Hiroshi Ono (ICS)

EMBA 소식

EMBA 연합 동문 골프대회 열려

EMBA 동문 골프대회가 2016년 10월 23일 강원도 홍천군 소재 샤인데일 CC 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EMBA 1 ~ 6기 졸업생뿐 아니라 7,8기 재학생 및 GMBA, SMBA 동문들도 함께 참석하여 경영전문대학원 동문들 간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임종원 명예교수, 남익현 교수, 채준 교수, 노상규 교수, 박진수 교수가 참석하여 행사를 더욱 빛내 주었다.

EMBA 총동문회 5대 운영진 출범

EMBA 제5대 총동문회 김덕상 회장과 함께 EMBA 동문들을 위해 1년간 봉사와 희생을 해줄 총동문회 운영진이 출범하였다. 김덕상 회장은 2017년 1월 10일 운영진 회의에서 운영진 구성과 총동문회 연간 행사 계획을 확정하였다. 부회장단으로는 4기 전기현 동문이 수석 부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1기 부회장 장승희 동문, 2기 부회장 박정우 동문, 3기 부회장 최인섭 동문, 5기 부회장 백성렬 동문, 6기 부회장 정일부 동문, 7기 부회장 변우석 동문이 선출되었다. 감사에는 3기 이주철 동문, 4기 오탁근 동문이 사무처장에는 3기 조오제 동문, 사무차장에는 4기 박영신, 5기 이장훈, 6기 정휘, 7기 류정도 동문이 맡아주기로 했다. 연간 주요 행사로는 7기 신입동문환영회 및 정기총회(2017. 3. 22)와 EMBA 연합골프 대회(2017. 10월 중 예정), 송년회 및 정기총회(2017. 12. 6)행사를 확정했다. 올해 신규행사로 EMBA 동문들을 위한 Open Class를 4~5회 예정하고 있으며 5월에는 동문 Family Day 를 겸한 동문 영화감상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시행을 미루어왔던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송년회 때 공정한 평가를 통해 시상할 계획이다. 김덕상 총동문회장은 운영진들에게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으며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약속했다.

EMBA 사은회 개최

학위수여식 전날인 2월 23일 저녁 7시부터 서울대학교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지난 2년간 경영대학 교수님들의 가르침에 보답하기 위한 사은회가 EMBA 7기들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재학 중 행사 때마다 많은 재능과 끼를 보여준 EMBA 7기 송자은(윈하이텍) 학생과 김병수(한솔케미칼) 학생의 사회로 진행된 본 행사는 패션쇼나 영화제에서나 볼 수 있는 런웨이를 설치하여 참석하신 교수님 한 명씩 런웨이를 통해 무대에 등장 후 졸업생들에 대한 덕담을 전하는 파격적인 방식이 처음 시도되었다. 졸업생들이 심혈을 기울여 설치한 런웨이 무대를 통해 지난 2년간 EMBA 학생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베푼 경영대학 교수님들이 한 명씩 입장한 후에는 재학 중 EMBA 학생들이 경영대학 교수님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추억하는 사진영상 공개에 이어 김병수 원우의 피아노 연주와 이태리 라 스칼라 오페라극장 정단원 출신의 변우석 7기 학생회장이 멋진 성악공연을 통해 교수님들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였다. 이번 사은회는 신임 학장단을 비롯하여 총 10명의 교수진이 참석하였으며 약 50명의 EMBA 7기 졸업생들과, 8기 재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사제간의 훈훈한 정을 나누며 졸업 후에도 학교와 끈끈한 유대관계를 지속하기로 다짐하였다.

EMBA 졸업생 발전기금 전달식

2016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 EMBA 7기 졸업생들이 학교 사랑과 후배 사랑의 마음을 담아 1,700만원의 발전기금을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학위수여식 당일에 변우석 학생대표(EMBA 15)가 박철순 경영(전문)대학(원)장에게 발전기금을 전달하였다.

경영자과정 소식

1

한국전력고급경영자과정

2016년 3월 7일 한국전력고급경영자과정에 입학한 한국전력 임직원 42명이 지난 1월 13일 수료식을 끝으로 과정을 마무리 했다. 11개월간의 과정 동안 경영학에 대한 교과과정 및 전공과정은 물론 인문학, 예술 행정 등의 교양 강의 등을 수강했으며, 논문발표를 진행했다. 1월 13일 오후 5시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2층 무궁화홀에서 진행된 수료식에는 42명 전원이 수료했으며, 한국전력 김회천 관리본부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이정복 처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34기 부부동반특강

34기 논문발표

35기 한국전력고급경영자과정 입학식

2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서울대 경영대학의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은 1994년에 개설된 이래 배출동문이 1700여명이 넘는 공기업 특화 교육프로그램으로 글로벌화된 전문경영자 육성 및 여러 공기업 구성원의 만남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3월 7일 공기업 고급경영자과정 23기로 정부출연 공사 48개 기관에서 총 95명이 입과했으며 지난 1월 13일 수료식을 마쳤다. 한편 지난 3월 6일 오전 11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2층 무궁화홀에서 24기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의 입학식이 진행되었으며, 40개 기관의 부처장급 총 87명이 참석했다. 24기는 오는 1월 12일 수료일까지 경영학강의, 사례연구, 기업현장방문 및 논문 발표 등을 통해 최신 경영이론과 기법들을 습득할 예정이다.

23기 공기업 수료식

24기 공기업 입학식

3

AMP 소식

제6회 서울대 AMP 총동창회 친선 및 나눔 골프대회 개최 및 발전기금 전달

2016년 9월25일(일) 오전11시, 안성베네스트CC 에서 '제6회 서울대 AMP 총동창회 친선 및 나눔 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AMP 79기와 80기가 주관한 이번 나눔골프대회는 남익현 경영대학장, 이유재 AMP 주임교수, 김수욱 AMP 부주임교수, 구자준 회장, 송경식 명예회장등 160명의 AMP 총동창회 동문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나눔 골프대회 수상자 코리아랜드컴퍼니 정팔도 회장(AMP 26기), (주)알트윈 정귀열 회장(59기), (주)바바그룹 문인식 회장(72기) 의 협찬금을 포함한 대회 협찬금을 서울대학교와 유니셰프에 기부하기로 하는 쾌거를 이룩하으며, 10월 4일 오전 7시 30분 롯데호텔서울 버클리볼룸에서 열린 'AMP 총동창회 발전기금전달식'에서 경영대학에 3,000만원을, 유니셰프에 1,500만원을 전달하였다.

'AMP 총동창회 신년교례회 및 2016년 AMP대상 시상식'

2017년 1월10일 (화) 오후6시, 롯데호텔서울 사파이어볼룸에서 'AMP 총동창회 신년교례회 및 2016년 AMP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2016년 AMP 대상은 (주)LG화학 박진수 부회장(AMP 57기), (주)대창스틸 문창복 회장(52기), (주)바바그룹 문인식 회장(72기), 영림임업(주) 황복현 대표이사(45기)가 수상하였다.

4

CFO 소식

CFO 총동창회 2017 주요 일정

월	일	내용
1월	17일(화)	정기총회 및 신년회
3월	21일(화)	2017 SNU CFO 1차 정기 포럼 "착한 식당, 착한 경영" 김진 기자(채널A)
4월	11일(화)	제6대 집행부 회장단 상반기 모임
	22일(토)	2017년 춘계 산행
6월	20일(화)	2017 SNU CFO 2차 정기 포럼
8월	29일(화)	제6대 집행부 간사장 모임
9월	05일(화)	2017 SNU CFO 3차 정기 포럼
	16일(토)	제7회 한마음 골프 & 등산 대회
10월	24일(화)	제6대 집행부 회장단 하반기 모임
11월	21일(화)	2017 SNU CFO 4차 정기 포럼

SNU NEWS

[전공별 소식]

회계학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장학증서 수여식

2016학년도 2학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장학생이 선발됐다. 딜로이트 안진회계 법인 장학생 선발은 매 학기 CPA 시험을 준비중인 경영대 학부생 중 3명을 선정하여, 매 학기 2백만 원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6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 및 장학증서 수여식은 10월 13일 12시 소담마루에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정희 대표, 한홍석정무, 최동희회계사 및 회계전공 교수와 선발된 장학생이 참석했으며, 장학금 지급 및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재무

2016 정기학술대회 개최

한국금융정보학회(회장 조성욱) 2016 정기학술대회가 12월 9일 서울대학교 LG 경영관 101호 ,116호에서 열렸다. 한국금융정보학회는 금융정보의 생산, 공유 및 이용 등에 대한 경제학, 경영학, 통계학, 정보통신, 법학, 소비자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제간 연구에 특화함으로써 금융정보 관련 산업, 그리고 나아가 금융산업 전반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10년 8월 창립되었으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조성욱 교수가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다.

교수소식

고봉찬 교수 한국증권학회 제34대 회장 취임

고봉찬 교수는 지난 2월 24일 열린 한국증권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2018년 2월말까지이다. 한국증권학회는 지난 1976년 창립된 재무·금융분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학회로 회원 수만 1,420명에 이른다. 학문과 실무의 연계를 강조해 순수 학술 연구와 함께 금융 실무 및 제도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봉찬 교수 아시아태평양 국제금융 학술대회 개최

고봉찬 교수는 지난 12월 2~3일 양일간 한국증권학회가 주관하는 제 11회 CAFM의 조직위원장으로서 전세계 25개국 130여명이 참가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조선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미국 코넬대학의 Karolyi 교수를 기조연설자로 모시고, 엄선된 57편의 학술논문 발표와 박사과정 세션, 그리고 8편의 우수논문 시상을 통해 아태지역 학술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곽수근 교수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이사로 선임

곽수근 교수는 2월 13일(현지시간)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이사회 이사로 선임됐다. IFRS재단 이사회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등을 감독하는 상위 기구다. IASB 위원을 임명하고 IFRS 재단의 정관 개정과 예산 승인 등 역할을 수행한다.

민상기 교수 금융개혁 국민훈장 수상

사진출처
파이낸셜뉴스 2016년 10월 25일자

민상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금융개혁 추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10월 25일 '제1회 금융의날' 행사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고 민상기 교수 등 저축 및 금융개혁 관련 유공장 216명에게 포상했다. 이날 포상 최고 등급인 국민훈장 목련장 영예는 민상기 서울대 명예교수에게 돌아갔다. 그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공적관리자금위원회 민간위원장, 금융개혁회의 의장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개혁 추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경원 교수 '제5회 다산 젊은 경제학상' 수상

사진출처
한국경제 2016년 10월 5일자

서경원 교수가 2016년 10월 13일 만 45세 이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5회 다산 젊은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다산 젊은 경제학
자상 주인공인 서경원 교수는 주식시장이나 선거 등 확률을 계산하기 힘든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연구해 주목받았다.

교수소식

강성춘 교수(외 Shad Morris, James oldroyd, Joonho Kim)

'Reading the Stars: Determining Human Capital's Value in the Hiring Process'논문이 Human Resource Management에 게재 확정되었다.

김정욱 교수(외 Hyunbae Chun, Randall Morck)

'Productivity Growth and Stock Returns: Firm and Aggregate-Level Analyses' 논문이 Applied Economics에 게재되었다.

박남규 교수 (외 Xavier Martin, Jinju Lee, John M Mezias)

'Effects of functional focus on bounded momentum: Examining firm- and industry-level alliances' 논문이 Strategic Organization 저널에 게재되었다.

박소정 교수(외 Jean Lemaire, Xiaoying Xie)

'The Opaqueness of Structured Bonds: Evidence from the US Insurance Industry' 논문이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Issues and Practice에 게재되었다.

백복현 교수(외 John Evans III, Kyonghee Kim, Yoshio Yanadori)

'White collar incentives'논문이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에 게재되었다.

서경원 교수(외 LARRY G. EPSTEIN, HIROAKI KAIDO)

'Robust Confidence Regions for Incomplete Models'논문이 Econometrica에 게재되었다.

서경원 교수(외 Jinhyuk Lee)

'Revisiting the nested fixed-point algorithm in BLP random coefficients demand estimation'논문이 Economics Letters에 게재되었다.

송인성 교수와 배종훈 교수

'Politics, strong institution and competitive advantage: an examination of organizational aspiration for competition' 논문이 Computational and Mathematical Organization Theory에 게재되었다.

송재용 교수 와 이경묵 교수(외 Tarun Khanna)

'Dynamic Capabilities at Samsung: Optimizing Internal Co-opetition'논문이 California Management Review에 게재되었다.

송재용 교수(외 Woojin Yoon, Sang Ji Kim)

'Top management team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 creativity'논문이 Review of Managerial Science에 게재되었다.

신재용 교수(외 Sunyoung Kim)

'Executive bonus target ratcheting: Evidence from the new executive compensation disclosure rules'논문이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에 게재 확정되었다.

오정석 교수 와 박진수 교수(외 Youngseok Choi)

'A Novel Approach to Managing the Dynamic Nature of Semantic Relatedness' 논문이 Journal of Database Management에 게재되었다.

오정석 교수(외 Yoonsun Oh)

'A critical incident approach to consumer response in the smartphone market: product, service and contents'논문이 Information Systems and e-Business Management에 게재 확정되었다.

윤석화 교수(외 Minyoung Cheong, Seth M. Spain, Francis J.Yammarino)

'Two faces of empowering leadership: Enabling and burdening'논문이 The Leadership Quarterly에 게재되었다.

윤석화 교수(외 Seckyoung Loretta Kim, Soojin Lee)

'Abusive supervision, knowledge sharing, and individual factors: A conservation-of-resources perspective'논문이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에 게재되었다.

윤석화 교수(외 Seckyoung Loretta Kim, Myungsun Kim)

'What do we need for creativity? The interaction of perfectionism and overall justice on creativity'논문이 Personnel Review에 게재되었다.

윤석화 교수(외 Soojin Lee, Soojung Han, Minyoung Cheong, Seckyoung Loretta Kim)

'How I get my way? A meta-analytic review of research on influence tactics'논문이 The Leadership Quarterly에 게재되었다.

이관휘 교수(외 Horacio Sapriza, Yangru Wu)

'Sovereign debt ratings and stock liquidity around the World'논문이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에 게재되었다.

이관휘 교수(외 Shu-Feng Wang)

'Short-selling with a short wait: Trade- and account-level analyses in Korean stock market'논문이 Pacific-Basin Finance Journal에 게재되었다.

이유재 교수(외 Moon-Kyung Cha, Richard P. Bagozzi)

'Effects of Customer Participation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Programs on the CSR-Brand Fit and Brand Loyalty' 논문이 Cornell Hospitality Quarterly에 게재되었다.

이유재 교수(외 Seongun Jeon, Chulwon Park)

'Co-creation of background music: A key to innovating coffee shop management' 논문이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에 게재되었다.

이유재 교수(외 Jaehoon Lee, L.J.Shrum)

'The role of cultural communication norms in social exclusion effects'논문이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에 게재되었다.

이제호 교수와 송재용 교수(외 Jae-Suk Yang)

'Network structure effects on incumbency advantage'논문이 Strategic Management Journal에 게재되었다.

정운오 교수(외 Heesun Chung)

'Financial Disclosure Incentives and Organizational Form Changes'논문이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에 게재되었다.

최종학 교수(외 Seil Kim, K. K. Raman)

'Did the 1998 Merger of Price Waterhouse and Coopers & Lybrand Increase Audit Quality?'논문이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에 게재 확정되었다.

최진남 교수 와 이경묵 교수(외 MOON JOUNG KIM)

'Trait Affect and Individual Creativity: Moderating Roles of Affective Climate and Reflexivity' 논문이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에 게재되었다.

최진남 교수(외 Jisung Park, Heesun Chae)

'The need for status as a hidden motive of knowledge-sharing behavior: An application of costly signaling theory'논문이 Human Performance에 게재되었다.

최진남 교수(외 Sun Young Sung, Zhengtang Zhang)

'Workforce Diversity in Manufacturing Companie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Role of Status-Relatedness and Internal Processes'논문이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에 게재 확정되었다.

최진남 교수(외 Goo Hyeok Chung)

'Innovation Implementation as a Dynamic Equilibrium: Emergent Processes and Divergent Outcomes'논문이 Group & Organization Management에 게재 확정되었다.

최진남 교수(외 Sun Young Sung)

'To Invest or not to Invest: strategic decision making toward investing in training and development in korean manufacturing firms'논문이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에 게재 확정되었다.

최진남 교수(외 Young Won Rhee)

'Knowledge Management Behavior and Individual Creativity: Goal Orientations as Antecedents and In-Group Social Status as Moderating Contingency'논문이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에 게재 확정되었다.

최진남 교수(외 Chung, G. H., Du, J.)

'Tired of Innovations? Learned Helplessness and Fatigue in the Context of Continuous Streams of Innovation Implementation'논문이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에 게재 확정되었다.

동문소식

경영학부 동문

▲ **고봉찬**(학사 81, 석사 87) 한국증권학회장 취임
▲ **김대지**(학사 86) 중부청 조사2국장 선임
▲ **김의형**(석사 81)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취임
▲ **김준**(학사 80) SK 이노베이션 부회장 취임
▲ **박상규**(학사 83) SK네트웍스 사장 취임
▲ **박정림**(학사 82) KB금융지주 부사장 선임
▲ **박호환**(학사 77, 석사82) 한국인사관리학회장 선임
▲ **배인수**(학사 82) 베어링자산운용 대표이사 취임
▲ **신영선**(석사 86)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 **유동주**(학사 81)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 취임
▲ **유인규**(학사 88) 국회 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 **윤종언**(학사 75, 석사 80) 충남테크노파크 제 9대 원장 취임
▲ **이수철**(학사 87, 석사 93)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 선임
▲ **이재희**(학사 82, 석사 87) 한솔홀딩스 대표이사 선임
▲ **이현승**(학사 84) 현대자산운용 사장 취임
▲ **이희진**(학사 82) 국제개발협력학회 제 10대 회장 취임
▲ **임청원**(석사 94) 한국전력 인천지역 본부장 선임
▲ **정일재**(학사 77, 석사 81) LG경제연구원 원장
▲ **정태수**(학사 77, 석사 81) 효성인포 신임 대표
▲ **조재민**(학사 81) KB자산운용 대표이사 선임
▲ **최중경**(학사 75) 한국가이드스타 이사장 취임

EMBA 동문

EMBA 09

▲ **김태현** (주)GMI Entertainment 대표이사
▲ **김재환** ㈜에스티유니타스 그룹장
▲ **이풍연** 디멘션 데이타 전무
▲ **안세현** ㈜에스티유니타스 본부장

EMBA 10

▲ **정경원** 한국전자인증㈜ 사장
▲ **김아경** Masimo Korea 사장
▲ **김지훈** SK텔레콤㈜ 팀장
▲ **권경기** ㈜KCC 팀장
▲ **박상훈** 신안그룹 금융부문 주주대표
▲ **박정우** ㈜인피니플럭스 부사장

EMBA 11

▲ **박종삼** 베리타스자산대부㈜ 상무
▲ **김상현** EMW㈜ 부사장
▲ **김태형** 한전KPS㈜ 부장
▲ **윤석빈** 크라운해태홀딩스 대표이사

EMBA 12

▲ **유현진** 유한킴벌리㈜ 본부장
▲ **정형근** ㈜한국존슨앤존슨메디칼 상무
▲ **김지욱** ㈜LG CNS 우즈베키스탄 법인장
▲ **정병갑** 엑셀런파트너스㈜ 대표이사

EMBA 13

▲ **홍세화** GS EPS㈜ 팀장
▲ **하상종** 현대캐피탈㈜ 실장
▲ **최동열** ㈜KT 상무보

EMBA 14

▲ **김형노** (주)송현홀딩스 이사

EMBA 15

▲ **송자은** ㈜윈하이텍 상무
▲ **장유신** 한국오라클(유) 전무
▲ **이형용** ㈜티맥스소프트 상무
▲ **김재수** KC코트렐㈜ 상무
▲ **박정윤** 카카오뱅크 부장
▲ **이정민** 링네트㈜ 등기이사
▲ **김정곤** 한국타이어㈜ 팀장
▲ **남태훈** 국제약품㈜ 대표이사

GMBA 동문

GMBA 07

▲ **김태홍** 삼성증권 기업금융 3팀 이사 승진
▲ **유지현** 2017년 G, S MBA 총동문회장 취임 (리치랜드 상무)

GMBA 09

▲ **최영환** 메르세데스 - 벤츠 코리아 상무

<경영대학 동문 소식을 기다립니다>
경영대학 뉴스레터에 게재할 동기회 소식 및 동문 소식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동문들에게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TEL 02.880.8931 **FAX.**02.877.0513 **문의 E-MAIL** jykang@snu.ac.kr **담당자** 강지영 ***동문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 전 기 금 소 식

아모레퍼시픽
글로벌 우수인재 장학금 출연 협약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서경배)가 글로벌 우수인재 장학금 10년간 출연을 협약했다. '아모레퍼시필 글로벌 우수인재 장학금'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이 매 학기 선발하여 추천하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중국유학생들의 경력개발 및 글로벌 국제교류, 인재 육성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장학금 출연 1년차인 2016년에는 학기당 3명을 선발했으며, 올해부터는 6명, 3년차에는 9명 등으로 인원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Wall of Honor
"S-Honors Club 신규선정"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는 1975년 경영대학 설립 이래로 1천 만원 이상 발전기금을 출연해주신 분들의 뜻을 기리고 학교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기부 문화를 정립하고자 경영대학 SK경영관 1층 로비에 Wall of Honor(기부자 기념벽)을 설치하고 매 학기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하반기 S-honors Club 신규 선정자는 아래와 같다.

참나무클럽 : 학사 82, 한동현

소나무클럽 : AMP 81기, 김성민, CFO 25기, 학사 86

경영대학 발전기금 소식

경영대학 발전기금 출연안내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장실 (02-880-8931)

경영대학 홈페이지 http://cba.snu.ac.kr

기금 출연해주신 분들

다음은 지난 2016. 08. 01 ~ 2017. 02. 28 까지
우리 대학에 기부해 주신 내용이다.

1,000만원 이상		
학사 82 동기회 일동	547,930,186	
원재연 (경영/ 학사 82)	480,000,000	20억 약정
한동현 (경영/ 학사 85)	100,000,000	
익명	100,000,000	4억 약정
AMP 81기 일동	50,000,000	
김성민 (경영/ EMBA 11)	50,000,000	
AMP 82기 일동	50,000,000	
최고경영자과정총동창회	30,000,000	
단암장학재단	20,000,000	
학사 86 동기회 일동	16,100,000	
㈜아모레퍼시픽	15,000,000	10억 5백만원 약정
동부문화재단	15,000,000	
CFO 25기	10,000,000	
곽성현	10,000,000	1억 약정
100만원 이상		
최석윤 (경영/ 학사 79)	5,400,000	
국기호 (경영/ 학사 79)	5,000,000	
AAP(최고감사인과정) 17기	4,000,000	
조재호 (경영/ 학사 74, 석사 78)	3,000,000	3,000만원 약정
㈜한솔	3,000,000	2,100만원 약정
㈜대림제지	3,000,000	
학현사	3,000,000	
후원자00026	2,916,655	
㈜스윗트래커	2,000,000	
노원종 (경영/ 학사 96)	1,350,000	
김도영 (경영/ GMBA 06)	1,000,000	
티유브이슈드코리아㈜	1,000,000	
김선규 (경영/ EMBA 10)	1,000,000	
조재민 (경영/ 석사 82)	1,000,000	1,000만원 약정
10만원 이상		
유한회사 본음인베스트먼트	500,000	
이현수 (SCP 2기)	350,000	120만원 약정
김흥국 (경영/ 학사 72)	300,000	200만원 약정
이홍근 (경영/ 학사 70, 석사 76)	300,000	
이상목 (경영/ 학사 06)	210,000	36만원 약정
황인선 (경영/ 학사 93, GMBA 06)	150,000	
유경연 (경영/ 학사 95)	140,000	100만원 약정
조오제 (경영/ EMBA 11, CHRO 1기)	100,000	200만원 약정
1만원 이상		
신종기 (ABP 49)	40,000	24만원 약정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NU BUSINESS SCHOOL

학부 동문

강남석('96) 강동석('85) 강동수('97) 강성원('66) 강승만('05) 강연재('75) 강옥구('98) 강윤석('88) 강인수('87) 강정영('98) 강정훈('98) 강중구('82) 강창호('85) 강희천('88) 고대원('84) 고석준('93) 고성재('96) 고성천('79) 고승현('85) 고재희('93) 고현실('98) 고희강('98) 곽기용('90) 곽병진('84) 곽윤구('92) 구경철('81) 구본준('97) 구양훈('92) 국기호('79) 권민정('00) 권성환('99) 권순만('83) 권영수('75) 권주팔('86) 권혁재('79) 김갑순('88) 김건우('93)

김경배('82) 김경철('90) 김광('83) 김광민('99) 김광섭('95) 김광성('73) 김광일('83) 김광일('84) 김광점('83) 김광호('85) 김규완('06) 김근중('87) 김기동('83) 김기록('00) 김기태('84) 김나연('01) 김남곤('89) 김남훈('96) 김대열('95) 김대욱('84) 김도연('98) 김동성('92) 김동필('85) 김동회('88) 김두만('59) 김란옥('99) 김만춘('96) 김명관('82) 김문현('87) 김범수('86) 김범준('92) 김병옥('83) 김복균('98) 김봉경('92) 김상노('93) 김상민('94) 김상형('99)

김상훈('95) 김선엽('88) 김성권('99) 김성균('89) 김성기('90) 김성남('83) 김성열('57) 김성천('84) 김성철('83) 김수철('95) 김수환('82) 김신('75) 김열중('77) 김영대('90) 김영민('98) 김영봉('84) 김영삼('87) 김영일('82) 김영필('00) 김완석('97) 김완희('83) 김용범('93) 김용완('87) 김용운('83) 김용원('81) 김용철('83) 김우택('83) 김유주('87) 김윤경('99) 김윤수('84) 김은정('97) 김의성('84) 김이환('93) 김익철('91) 김인수('83) 김일섭('64) 김자영('00)

김재일('81) 김재종('00) 김재헌('82) 김재환('92) 김정명('98) 김정은('99) 김종규('83) 김종성('64) 김종우('83) 김종한('92) 김종흔('92) 김준원('95) 김준철('83) 김준형('93) 김준호('81) 김지연('01) 김지정('99) 김진태('88) 김진현('84) 김창래('88) 김창원('97) 김철원('93) 김춘훤('86) 김치근('83) 김태곤('82) 김태오('70) 김해권('97) 김혁('87) 김현두('94) 김형태('95) 김홍섭('79) 김회석('95) 김후성('99) 김희재('98) 김흥국('72) 나성민('97) 나성찬('86)

나형균('86) 남기천('82) 남수현('87) 남연우('83) 남영호('75) 남우석('97) 남욱('82) 남중수('75) 노기팔('86) 노상규('83) 노석균('83) 노원종('96) 노종현('98) 류경표('83) 류승동('82) 류인('79) 류재욱('87) 류종윤('82) 류헌석('98) 모과균('84) 모성원('97) 문대원('71) 문보성('95) 민경인('96) 민대환('75) 민보현('97) 민승기('74) 민재윤('98) 민형동('71) 박경진('03) 박광채('83) 박기태('85) 박기형('83) 박래수('84) 박부영('96) 박상규('83) 박성우('83)

박수민('96) 박영관('04) 박용이('57) 박용진('85) 박용환('72) 박인근('91) 박재혁('86) 박정래('72) 박정선('89) 박종선('99) 박종식('96) 박종우('94) 박종원('83) 박주현('98) 박준영('91) 박중현('94) 박지은('98) 박지현('88) 박지혜('01) 박진영('82) 박찬용('86) 박찬호('83) 박창길('66) 박철기('97) 박철수('83) 박철용('78) 박태규('92) 박태성('87) 박학규('82) 박해용('96) 박현정('97) 박형근('98) 박형봉('86) 박희석('84) 배성환('99) 배수일('83) 배영효('78)

배윤정('03) 배화주('83) 백동관('78) 백우현('74) 백창기('76) 서대윤('62) 서동규('84) 서문기('84) 서승욱('96) 서영석('98) 서원일('96) 서정수('87) 서종현('95) 서진식('88) 서희원('98) 석훈('01) 선병오('95) 선우희연('99) 성상현('84) 성태호('95) 성태홍('83) 손병옥('98) 손영백('94) 손영진('81) 손영진('82) 손원준('96) 손은석('91) 손종현('94) 손준원('94) 손창욱('09) 손현석('92) 송기호('90) 송용('87) 송인준('85) 송재익('94) 송종호('84) 송하동('83)

신기천('81) 신상철('86) 신영욱('82) 신용삼('73) 신용항('96) 신진영('01) 신현철('97) 신희균('89) 심성보('82) 심수아('88) 심정헌('96) 심현석('96) 심호식('97) 안경태('71) 안계환('82) 안민희('94) 안성칠('83) 안영균('78) 안종범('83) 안홍환('70) 양선엽('77) 양성현('94) 양승우('68) 양시형('92) 양안수('97) 양일근('85) 양희동('84) 어경석('91) 엄정근('84) 오기원('83) 오동렬('99) 오상록('09) 오선영('83) 오성호('92) 오승혁('93) 오엽록('81) 오윤택('75)

오재권('75) 오정구('94) 오정림('97) 오창석('82) 옥성환('92) 옹성종('95) 우두헌('61) 우승백('95) 우영기('97) 원재연('82) 원효성('79) 유경석('96) 유경연('95) 유기석('85) 유병준('90) 유상문('99) 유석렬('70) 유영민('01) 유정민('96) 유정호('98) 유진무('62) 유희찬('80) 윤성복('69) 윤여진('97) 윤영구('97) 윤영기('83) 윤장희('83) 윤재봉('73) 윤제철('66) 윤종현('82) 윤지현('91) 윤현철('78) 윤훈수('83) 이강민('95) 이건우('95) 이경준('97) 이경희('84)

이광우('84) 이국진('77) 이규환('81) 이기국('90) 이기복('93) 이기봉('83) 이남주('95) 이대건('03) 이대성('83) 이덕준('83) 이덕훈('89) 이동건('82) 이동훈('87) 이동훈('95) 이만열('82) 이명규('83) 이명철('71) 이문희('82) 이민석('82) 이봉주('98) 이상목('06) 이상민('90) 이상종('95) 이석규('83) 이석훈('99) 이선민('97) 이세용('83) 이승렬('02) 이승은('03) 이승철('93) 이승호('82) 이승호('88) 이승호('92) 이승훈('04) 이영상('59) 이영서('61) 이영웅('78)

이영재('97) 이영진('84) 이왕상('92) 이용갑('83) 이용국('84) 이용규('84) 이용범('97) 이용우('95) 이우종('97) 이원('83) 이원하('96) 이유진('88) 이윤('87) 이응상('83) 이재국('59) 이재영('74) 이재원('01) 이재원('55) 이재일('73) 이재호('84) 이재호('99) 이재훈('98) 이정규('99) 이정원('84) 이정인('83) 이정훈('88) 이정희('79) 이종철('78) 이주세('83) 이주영('00) 이준근('86) 이준기('00) 이준엽('00) 이준우('96) 이준원('92) 이준호('97) 이지신('84)

이지원('99) 이진방('67) 이진욱('92) 이창우('74) 이창환('74) 이창훈('81) 이철영('63) 이철주('59) 이춘호('83) 이태영('78) 이태호('92) 이한목('80) 이혁수('83) 이현승('84) 이현우('92) 이현철('83) 이형오('82) 이호석('02) 이홍근('70) 이환인('83) 임일('84) 임지산('93) 임진환('83) 임형주('92) 임환범('02) 장경준('74) 장무호('98) 장보훈('83) 장사범('84) 장석우('99) 장선택('86) 장영철('76) 장영호('93) 장인근('84) 장종현('78) 장진국('00) 전괄('76)

전규안('85) 전기환('83) 전성용('85) 전용배('82) 전익수('83) 전홍('83) 정기영('67) 정건해('65) 정경수('91) 정국원('99) 정기철('97) 정명훈('93) 정민수('93) 정병규('83) 정병환('95) 정성학('92) 정수현('98) 정승원('97) 정승환('83) 정영채('82) 정옥희('82) 정용재('83) 정우창('85) 정욱재('91) 정원용('83) 정은혜('00) 정일용('95) 정정한('94) 정찬수('82) 정창모('81) 정태천('86) 정하용('65) 정한('97) 정한성('70) 정회동('76) 제갈정웅('65) 제원용('98)

조경목('82) 조길현('91) 조명현('83) 조민식('86) 조민제('86) 조성권('00) 조성호('84) 조연주('87) 조영기('02) 조영은('01) 조영창('97) 조용균('98) 조용해('69) 조원웅('97) 조원홍('83) 조윤제('98) 조인하('83) 조재민('74) 조정훈('97) 조진제('05) 조태현('75) 조현석('98) 조현탁('83) 조형태('97) 주대현('91) 주성도('75) 주용훈('97) 주정일('84) 지성배('86) 지창수('55) 진승환('90) 차경민('91) 차세영('95) 차재연('84) 천상훈('89) 최광해('82) 최기엽('82)

최동수('65) 최동진('99) 최병노('83) 최병희('95) 최석윤('79) 최선화('97) 최성범('78) 최승환('82) 최승훈('89) 최연식('97) 최욱경('84) 최원석('88) 최유화('83) 최은옥('86) 최정욱('84) 최종호('82) 최주호('84) 최준혁('91) 최지희('97) 최진아('85) 최진혁('96) 최창묵('82) 최창윤('96) 최현정('88) 최혜진('99) 하석원('96) 하승호('04) 하용이('73) 하장협('98) 하정주('84) 하태형('78) 한갑희('78) 한규영('95) 한동현('85) 한상무('89) 한상철('86) 한승수('82)

한정록('76) 한정탁('98) 한종철('79) 한준석('76) 한학주('97) 한형진('97) 한홍석('86) 함기창('57) 허병하('58) 허석영('83) 허은영('99) 허종('69) 현광진('83) 홍기수('89) 홍명주('98) 홍순호('62) 홍승환('95) 홍용천('87) 홍우선('80) 홍정범('82) 홍주완('84) 홍준기('91) 황건호('70) 황성엽('82) 황성택('86) 황수연('72) 황영선('82) 황윤재('98) 황인선('93) 황인찬('92) 황학연('89) 황호준('98)

대학원/MBA동문

강경호('99) 강주래('98) 권혁진('89) 김광윤('73) 김대근('02) 김봉경('92) 김상미('00) 김성현('99) 김영대('70) 김재윤('92) 나경원('99) 류환열('86) 명장호('99) 박동규('99) 박민수('01) 박진하('04) 박형순('00)

송혁준('90) 신현주('05) 안병주('07) 유성태('99) 이경중('01) 이권훈('84) 이기학('87) 이윤재('06) 이정묵('93) 이정훈('05) 이진영('82) 이홍근('76) 정문기('81) 정홍일('05) 조경훈('92) 조성룡('95) 조성연('97)

조재민('82) 천은영(박사 '07) 최원호('98) 한정섭('95) 홍진오('00) 황필주('83) 계명하(SNUMBA '09) 김도영(GMBA '06) 김선규(EMBA '10) 김성민(EMBA '11) 남상욱(SNUMBA '08) 남혜진(SNUMBA '09) 배기표(SNUMBA '09) 손헌배(SNUMBA '09) 위견(SNUMBA '08) 이진(SNUMBA '10) 장승희(EMBA '09)

조상익(EMBA '14) 조오제(EMBA '11)

경영자과정동문

이광열(AAP 17기) 최호상(AAP 16기) 한규선(AAP 16기) 김선애(ABP 26기) 강재철(AMP 67기) 고제방(AMP 65기) 구종태(AMP 45기) 권기술(AMP 09기) 권오영(AMP 64기) 금창대(AMP 38기) 김교준(AMP 67기) 김인규(AMP 06기) 김종광(AMP 45기) 김종엽(AMP 28기) 김주한(AMP 50기) 남정현(AMP 20기) 노기호(AMP 50기)

류덕희(AMP 29기) 박병렬(AMP 67기) 박성희(AMP 54기) 박세훈(AMP 67기) 박영관(AMP 29기) 박유덕(AMP 67기) 박윤택(AMP 64기) 박정석(AMP 68기) 박준형(AMP 02기) 박현섭(AMP 66기) 성시철(AMP 67기) 손경식(AMP 23기) 송언기(AMP 28기) 송진수(AMP 67기) 송진철(AMP 52기) 신성우(AMP 32기) 신언수(AMP 67기)

신종기(ABP 49기) 안병제(AMP 59기) 안응수(AMP 45기) 안창엽(AMP 68기) 유근영(AMP 64기) 유성규(AMP 44기) 유원찬(AMP 67기) 유창열(AMP 67기) 육근열(AMP 64기) 윤영호(AMP 11기) 은민수(AMP 67기) 이기천(AMP 71기) 이병재(AMP 19기) 이봉훈(AMP 40기) 이세엽(AMP 52기) 이원영(AMP 06기) 이장원(AMP 64기)

이재우(AMP 67기) 이정빈(AMP 68기) 이종태(AMP 50기) 이찬복(AMP 67기) 장신규(AMP 64기) 정석현(AMP 44기) 정재호(AMP 65기) 조석제(AMP 62기) 조성환(AMP 48기) 조승현(AMP 66기) 조희정(AMP 67기) 차문현(AMP 67기) 최진식(AMP 53기) 최효석(AMP 67기) 한규범(AMP 42기) 황복현(AMP 45기) 강근호(CFO 04기)

강장학(CFO 12기) 김중엽(CFO 06기) 류철한(CFO 12기) 박경진(CFO 12기) 박성훈(CFO 01기) 사재훈(CFO 07기) 송현종(CFO 02기) 신동호(CFO 02기) 심재복(CFO 12기) 안철홍(CFO 06기) 옥경석(CFO 04기) 이동신(CFO 10기) 이상래(CFO 07기) 이수연(CFO 08기) 이찬국(CFO 02기) 임경섭(CFO 03기) 장혁주(CFO 12기)

정종민(CFO 04기) 정철모(CFO 03기) 조효승(CFO 11기) 최명자(CFO 12기) 최태은(CFO 09기) 홍지숙(CFO 12기) 김종성(DMP 02기) 이필문(GIB 03기) 고성수(NSAMP 01기) 고기한(SCP 02기) 김광덕(SCP 02기) 성광웅(SCP 02기) 이현수(SCP 02기) 신재열(SCP 02기) 심경만(SCP 02기) 최성락(SCP 02기)

학부모

고상희 권숙형 권태석 강용학 김경숙 김승업 김영윤 김지형 민홍기 박영범 박정열 신희택 유병록 유준영 이강숙 이도흠 이동하

이성로 조현재 차동언 최윤규 최진호

기업, 단체

경영대학직원 일동 단암장학재단 덕송회 동문경영포럼2기 상대동창회 서울대학교경영대학원동창회 서울상대동문능상회 서울상대향상장학회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 AAP 1기일동 AAP 2기일동 AAP 3기일동 AAP 4기일동 AAP 5기일동 AAP 6기일동 AAP 7기일동 AAP 8기일동 AAP 9기일동 AAP 10기일동

AAP 11기일동 AAP 12기일동 AAP 13기일동 AAP 14기 일동 AAP 15기 일동 AAP 16기 일동 AAP 17기 일동 AMP 28기일동 AMP 61기일동 AMP 62기일동 AMP 63기일동 AMP 64기일동 AMP 65기일동 AMP 66기일동 AMP 67기일동 AMP 68기일동 AMP 69기일동 AMP 70기일동 AMP 71기일동

AMP 72기일동 AMP 73기일동 AMP 74기일동 AMP 75기일동 AMP 76기일동 AMP 77기일동 AMP 78기일동 AMP 79기일동 AMP 80기 일동 AMP 81기 일동 AMP 82기 일동 AMP 라이온스클럽 AMP 로타리클럽 AMP 총동창회 CFO 1기일동 CFO 2기일동 CFO 3기일동 CFO 4기일동 CFO 5기일동

CFO 6기일동 CFO 7기일동 CFO 8기일동 CFO 9기일동 CFO 10기일동 CFO 11기일동 CFO 12기일동 CFO 13기일동 CFO 14기일동 CFO 15기일동 CFO 16기일동 CFO 17기일동 CFO 18기일동 CFO 19기일동 CFO 20기일동 CFO 21기 일동 CFO 22기 일동 CFO 23기 일동 CFO 24기 일동

CFO 25기 일동 CHRO 1기 일동 CHRO 2기 일동 CHRO 3기일동 EMBA 1기 EMBA 2기 EMBA 3기 EMBA 4기 EMBA 5기 EMBA 6기 GMBA Finance Forum 바이오최고경영자과정 제8기 바이오최고경영자과정 제9기 자연친화경영과정 제1기 직원경영능력향상과정1기교육생일동 직원경영능력향상과정2기교육생일동 82 동기회 86 동기회 89A 타조알상조회

㈜골드윈코리아 ㈜네모커머스 농협 ㈜다이소아성산업 ㈜대림제지 대성한국캠브리지필터㈜ 대우증권 대전고교 ㈜대한항공 동부문화재단 ㈜동양강철 디엔씨엔지니어링㈜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롯데쇼핑㈜ ㈜리브로 미셸 유한회사 본음인베스트먼트 비티앤아이여행사 삼성SDS

삼성전자㈜ 삼성투자신탁운용㈜ ㈜삼익악기 삼일회계법인 삼정케이피엠지㈜ 생명보험협회 ㈜스윗트래커 신라교역㈜ 신라문화장학재단 ㈜아모레퍼시픽 아이씨티 소프트㈜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 아주베스틸㈜ 안진회계법인 양제상사 양제아이엔씨㈜ 언스트앤영어드바이저㈜ ㈜에스디케이

H&S Corporation SK 건설㈜ SK 네트웍스㈜ SK 이노베이션㈜ SK 텔레콤 엑스빼제㈜ LG디스플레이㈜ ㈜LG CNS 엘티에스코리아㈜ 오성엘에스티㈜ ㈜와이비엠시사 우리투자증권 우림건설 ㈜유한양행 증권금융연구소 ㈜KT 코오롱인더스트리㈜ 트러스톤자산운용㈜ 트리코인베스트먼트㈜

티유브이슈드코리아(주) PSK㈜ ㈜하나은행 하남산업㈜ 하이닉스반도체㈜ 학현사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항공사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한솥 ㈜한웰 ㈜한일맨파워 한화석유화학㈜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자동차㈜ 현대증권

경영대학 교수 및 교직원

강성춘 고봉찬 곽성현 곽수근 김병도 김상훈 김성수 김수욱 김영희 김익현 김재일 김진교 남익현 노상규 박남규 박원우 박희준 백복현 송재용

신재용 안중호 안태식 유병준 유희봉 윤계섭 윤석화 이경묵 이신이 이유재 이창우 임종원 장정주 전진록 정운오 조동성 조성곤 조성욱 조재호

채준 최도성 최미혜 최종학 최진남 최충림 최해영 황이석

그외

강상호 강성신 강진화 고영준 고재훈 고정목 공세형 곽성현 곽태희

길호문 김경민 김경준 김경훈 김광수 김광우 김근호 김도윤 김도현

김동찬 김명중 김미진 김민석 김보미 김병수 김상진 김선정 김수진

김아람 김용 김용하 김윤섭 김의형 김인영 김재홍 김정배 김종석

김준모 김준범 김준형 김지용 김진 김진호 김철기 김치열 김혁

김현신 김혜진 김흥식 나정인 남경우 남상헌 남형권 노리브가 노영근

노일석 노장욱 류연택 류우석 문소정 민준기 박상철 박소연 박소영

박우성 박원 박유상 박주흥 박진우 박형민 박희정 배성수 배영석

백성득 변중석 복정수 서미영 서철원 서태식 서형준 성은정 성지숙

손병구 손인석 손화섭 송영록 송은빈 송재승 송진혁 신경화 신문철

신세욱 신영직 신해성 안윤기 안진오 안태호 양범석 양우정 양현섭

오용진 오해균 옥정오 유옥동 유태준 유형관 유황선 윤용순 윤현묵

이권희 이규호 이기홍 이달근 이대우 이동훈 이상효 이석우 이선규

이수정 이승근 이승아 이승열 이시은 이영수 이우용 이유비 이윤기

이의석 이인구 이재덕 이정미 이주수 이주안 이준용 이창민 이철

이충민 이한규 이현수 이호인 이희진 임도연 임동준 임방진 임승철

장동우 장인수 장진호 장철희 장학성 장호진 장홍 장홍석 장환지

전광우 전영완 전우용 전재호 전진우 정금희 정병수 정병수 정상기

정성욱 정우철 정지은 정혁진 조병진 조재민 주소연 주순애 지운용

차호수 최규환 최영진 최재혁 최준걸 최지원 최진영 최창호 허윤제

현종윤 홍동희 홍윤기 황규태 황민상 황성필 황세미 황영기

*위 내용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 사이에 발전기금을 출연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명단입니다.

VERI LUX
TAS MEA
SNU
BUSINESS
SCHOOL